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 ▶ 일시: 2014년 01월 21일 (화) 15:00~17:00
- ▶ 장소: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다이나믹홀)
- ▶ 주최: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후원: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모시는 글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이자 우리사회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사회환경에 선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사회환경은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글로벌경쟁의 보편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청소년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역량은 청소년의 시기가 9~24세까지 폭넓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중심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미래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 특정 시기의 청소년이 아니라 9~24세를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발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청소년’의 개념과 시기를 모두 포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의 초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역량지수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제적인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정책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공청회 세부일정

사회: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본부장)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공청회	
14:4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사: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인사말: 권용현(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5:10~15:40	발표 : 청소년 역량지수 및 측정문항 개발을 위한 탐색적 논의 성은모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5:40~15:50	휴 식
15:50~:00	종합토론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조영미 (한국 YWCA 연합회 부장) 이세아 (서울당곡고등학교 학생)
16:40~16: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50~17:00	폐 회

목 차

Part 1: 청소년 역량지수(안)

제 1 장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	5
제 2 장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7
1. 청소년의 발달 및 정책적 특성	9
1)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9
2) 청소년의 정책적 특성	12
3) 연구의 주요 시사점	13
2.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15
1) 역량의 개념 및 특징	15
2)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16
3) 연구 주요 시사점	18
3. 국내 청소년 역량 연구의 주요 이슈	19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의 생애 핵심 역량 분석	19
2) 한국교육개발원(2002)의 생애 능력 분석	21
3)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학생 역량 분석	22
4) 교육부(2013)의 인성역량 분석	26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의 직업기초능력 분석	27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분석	28

7) 노동부(2006)의 기초직업능력 분석	29
8) 그 밖의 국내 핵심 역량 분석	30
9) 연구의 주요 시사점	31
4. 국외 청소년 역량에 대한 연구 동향	34
1) 국외 청소년 역량 연구의 주요이슈	34
2) 국외 청소년 역량체계분석	42
3) 연구의 주요 시사점	45
제 3 장 연구방법	47
1. 국내외 문헌 분석	49
2. 청소년 주요 역량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50
3. 델파이 조사	50
4. 토론회	50
5. 청소년 역량 타당성 예비조사	51
6. 공청회	51
7. 청소년 역량지수 타당성 본 조사	51
제 4 장 연구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53
1.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의 기본관점	55
2. 청소년 역량지수 개념 및 구성체계	56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56
2) 청소년 역량지수의 핵심개념	57
3)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	58
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65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문가 타당화	65
2) 청소년 역량지수 가중치 및 청소년 시기별 중요도	68

4. 청소년 역량 영역별 지수의 개념 및 특징	69
1) 생애학습역량	69
2) 생활관리역량	73
3) 진로개발역량	77
4) 대인관계역량	84
5) 사회참여역량	88
5.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 예비 타당화 검사 결과	96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문항분석	96
2)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 및 구성체계 검증결과	98
 참 고 문 헌	 105

Part 2: 청소년 역량지수(안) 공청회 토론문

1.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115
2.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118
3.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121
4. 조영미 (한국 YWCA 연합회 부장)	122
5. 이세아 (서울당곡고등학교 학생)	127

Part 1: 청소년 역량지수(안)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려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해 인생의 목표와 진로 비전을 수립하도록 격려하여 ‘내가 미래의 주인이며,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라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임
 -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OECD의 DeS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UNESCO, 2013)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계획에 있음.

○ 국내에도 역량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이나 자격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으나 관련 제도 개선이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 국내에서 이루어진 역량에 대한 논의는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역량으로 보는 입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입장 모두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소경희, 200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7년부터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은 도출된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해 왔음.

☞ 청소년기 중 학교생활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에만 관심이 있어 왔기에 청소년 생활의 전영역에서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관련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성공 역량과 자질 역량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대적 특성과 앞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하여야 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더불어, 청소년의 역량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제지수의 수준만을 반영하고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라고 하기에는 대표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대적 특성과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 및 육성하기 위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원할 수 국가적 청소년 역량 육성 정책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의 특성을 주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는 목적은
 - 1) 미래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 2) 현재 청소년의 역량수준을 측정·진단함으로써 정책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하는데 충분한 법적·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음
- 한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지수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수준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의 역량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수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진단할 수 있는 역량지수 및 역량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행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DeSeCo 프로젝트, OECD의 PISA 결과, ALL, 교육성취도평가국제연합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시민의식조사 등을 참조하여 공통역량지수를 개발함으로써 폭넓은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및 진단을 통해 청소년 정책을 체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청소년 역량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당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역량 증진 법적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청소년활동 영역별 역량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지수별 활동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제 2 장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제 2 장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 분석

1. 청소년의 발달 및 정책적 특성

1)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때문에 발달이론가들은 청소년 시기를 제2의 탄생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아동기적 심리적, 인지적 특성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치며 성인으로 발달, 성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가장 두드러진 발달과정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신장 및 체중이 급격히 늘고, 성적으로 성숙하여 남녀 간 모두 신체나 외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성장되는 신체는 이후 생애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체 외 정서적 인지적 발달영역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발달영역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18세기 Rousseau는 그의 저서 에밀(1799)에서 인간발달단계에서의 신체적 발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12세 이전을 야만인기로 규정하고 몸의 건전한 사용을 통한 신체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5세부터 12세까지를 야만인기로 명명하고 이시기에는 감각발달을 중점으로 하는 놀이, 스포츠, 게임 등 위주의 감각교육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건전한 인격을 갖추는 기초 체력을 강조하였다. 지금의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소년기(12세-15세)에는 풍부한 신체적 에너지와 함께 이성, 자기의식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합리적 사고와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며 이후 청년기(16세-20세)는 정서적으로 성숙해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

기로 도덕·윤리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하여 체력에 기초한 인지, 정서 능력의 발달을 강조하였다.

Sullivan(1953)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중 사회 관계적 측면 초점을 맞춰 발달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8세부터 20세까지의 발달특징을 살펴보면, 네 번째 단계인 아동후기(8-14세)에는 친밀한 동성친구를 갖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다섯 번째 단계인 청소년전기(12-18세)는 성적인 호기심과 함께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애정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아울러 여섯 번째 단계인 청소년후기(18-20세)는 성인사회로의 진입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통합하려는 욕구가 발생되어 이성, 동성 간의 균형적 관계 인식이 형성되며, 상하 관계, 사회 일원으로서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며 욕구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Erikson(1959)역시 사회 심리적 발달이론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사회참여단계를 설명하였는데 6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단계로 인지적·사회적 측면에서 유용한 지식과 언어를 습득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아(self)가 형성된다. 이 때 학교 등의 또래 집단 또는 친구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정을 받으며 근면성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실패경험이 많고 성취에 대한 비난을 받으면 열등감이 형성된다. 또한 그가 명명한 청소년전기(12-18세)에는 자신의 정체감 및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시기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 역할, 책임 등을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다만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형성하지 못 하면 역할혼미가 오며,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후기(19-24세)는 개인의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갖던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 일을 수행하고 자기 외의 문제에 심취하면서 공유된 정체감(shared identity)을 가지며 사회에 참여한다.

반면 Super(1990)는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진로발달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성장기(4-10세)로 자기(self)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가정과 학교의 주변 인물들과 동일시와 탐색을 통해 자아개념을 발달시켜나간다.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구분이 되고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적이고 호기심을 통해 직업세계를 접하게 된다. 흥미기는 개인의 취향이 우세하고 이는 활동의 목표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능력기는 능력이 중시되며 직업의 요구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 탐색기(15-24세)는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한 역할 수행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을 탐색하고 잠정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즉, 이 시기에는 진로발달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발달 과업이 된다. 또한 자신의 여러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게 된다. 탐색기도 결정화, 구체화, 실행기로 분류가 되고 결정화는 지금까지 탐색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고려한다. 구체화는 잠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를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로 옮기는 과정이며, 이때 선택된 직업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구체적인 취업방법, 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실행기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다.

Kohlberg(1987)는 도덕성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였고 도덕성 발달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총 여섯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먼저 전인적수준(10세 이전)은 아동들이 부모나 성인들이 제시하는 규칙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판단한다. 전인적수준은 처벌-복종지향, 개인적 보상 지향의 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복종지향은 타인의 의도는 무시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키려 하며 개인적 보상 지향은 자신의 욕구 충족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타인도 욕구가 있음을 인지한다. 다음으로 자율적 도덕성수준(11-19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시기에 대인관계 지향으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려하고 도덕성을 결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 특성과 법과 질서 지향으로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사회적 질서를 근거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인식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도덕성(20세 이상)은 사회적 질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도덕성을 모든 상황과 사회에 적용하는 추상적 원리와 가치로 정의한다. 사회적 합의 지향은 민주적 정차가 도덕성 판단에 근거가 되며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은 법과 제도에 전에 생명의 가치, 정의 인간의 존엄성, 평등 등의 추상적 가치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처럼 청소년은 신체적, 사회 심리적, 진로적, 도덕적 발달단계를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단계별 특징은 이들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된다.

2) 청소년의 정책적 특성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보는 대한 관점에 따라 정책 목표 및 대상이 달라진다. 청소년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중심적 관점, 예방적 관점, 청소년 개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특징을 살펴보기도 하는데(김광웅 외, 2009), 문제 중심적 관점은 인간 발달적 차원에서 각 발달 시기에 겪게 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문제 해결이 정책의 목표가 된다. 예방적 관점은 이와 달리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정책목표를 두고 위기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예방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둔다. 전자와 다른 점은 문제 중심적 청소년 정책이 문제의 상황에 처한 청소년만 그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잠재적 문제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개발적 관점은 청소년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지하고 이들의 잠재성을 개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문제 중심적 관점과 예방적 관점과 달리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으며 또한 문제 상황 또는 문제 예방적인 주제에 한정되어 청소년을 바라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개발적 관점은 종래의 문제중심적 접근의 단점을 극복하고 예방적 접근법의 한계점까지 지적하는 것을 주목할 만하며 최근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은 대표적인 청소년 개발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김기현, 장근영, 2012).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1987년에 본격화 되었지만 1960년도 이후 시대별 특성에 따라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적 특성이 변화해 왔다. 먼저 문제 중심적 관점은 1960년대 이후에서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에 해당되며 그때까지 청소년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 복지법 등 청소년을 보호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 대상도 미성년자, 문제 청소년 등 사회적 주류와 구분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에서 청소년헌장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8년까지는 문제예방적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정책적 특성은 청소년 육성에 맞춰져 있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헌장,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전체가 노출 될 수 있는 사회적, 발달적 문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

책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청소년은 성인의 관리 속에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도와 보호, 감독의 대상이었으며 청소년 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 복지의 이름으로 제도적, 시설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는 유보되었다.

이후 1998년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 헌장 역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주체적 자율권을 인정하고, 청소년 중심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며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자주적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삶의 주체로서 인식되면서, 청소년을 개발적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청소년의 삶의 역동성 및 주체성을 반영하여 2008년 제 4차 육성계획 및 2013년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청소년을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인지하고 전체 청소년의 사회 자본으로서의 역량강화와 소외 청소년에게는 사회참여, 교육 등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을 정책 기조로 삼아 건전하고 건강한, 아울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적 특성은 청소년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주요 시사점

이러한 청소년 발달적 특징과 정책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민법, 근로 기준법 등 청소년 정책을 입한 하고 시행하는 관련 법규의 경우 청소년을 특정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과 아동사이의 연령대로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 발달적 특징이 청소년 정책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발전적 관점의 청소년 정책의 대상은 13-18세인 중고생 대상에 국한되어 진행 되어 왔으며, 초등학생과 대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9-12세 및 19-24세의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령대를 포괄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김기현, 장근영, 2012).

둘째, 대표적인 정책인 청소년 육성정책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에도

그 정의가 명시되어 왔으며(제3조 2호),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청소년 복지에 대한 증진, 청소년 환경에 대한 개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들은 청소년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다소 한계를 갖고, 학교 밖 청소년, 중독 청소년, 미성년 근로자, 비행 청소년 등 대상화하여 그 대상을 한정 짓거나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1) 역량의 개념 및 특징

역량은 본래 직업 교육 또는 기업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직무 기술, 지식 뿐 아니라 개인적 자질, 태도 등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역량에 대한 개념이 학교를 비롯해 일반사회, 즉 생애 학습적 관점에서 재조명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역량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했던 지능을 통한 평가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부터이다. 사회심리학자인 McClelland(1993)는 지능검사가 성공적인 직무수행과 삶을 예측하지 못하고 여성,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능 대신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수행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역량을 뛰어나나 업무성과를 지닌 사람들의 직업역량으로 측정하도록 발전시켰으며 업무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Spencer와 Spencer(1993)이 직무 혹은 직업과 관련하여 역량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역량을 어떤 직무나 상황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 내적인 특성”(Spencer & Spencer, 1993, 소경희, 2008, p.4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역량은 개인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행동,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에는 다섯 가지 유형인 동기(Motive),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로 구분하였다. 동이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요인이며, 특질이란 인간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기저가 되는 요인이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태도, 가치이며, 지식은 개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정도이다. 기술이란 특정한 정신적, 물리적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동기, 특질, 자아개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표면적인 측면이지만 지식, 기술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표면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그래

서 지식과 기술은 비표면적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훈련이 용이하다.

이렇게 역량은 직장의 직무 또는 발달과업에서의 과제와 연결되어서 연구되어지다가, 최근 들어 인간이 운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생애(life)’개념이 접목된 ‘생애핵심능력(Life Key Competencies)’개념이 연구되어졌다(장근영, 김기현, 2010).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능력 연구로는 12개 국가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 추진된 OECD의 DeSeCo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인데,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생애핵심능력을 “일상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생활에 기여하는 능력”(Rychen & Salganik, 2003; 장근영, 김기현, 2010: p.78)이라고 정의하였다. DeSeCo의 세 가지 핵심역량으로는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의 개념을 요구 지향적(demand-oriented)이라고 설명하였다. 요구 지향적이라는 개념은 특정상황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 태도, 가치관, 동기를 발현함으로써 상황적 능력을 발휘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때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발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때론 개인이 가진 능력을 관리, 통제하며 소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동적, 상황적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기존의 지식 및 지능 중심이 능력의 기준이 되었던 패러다임에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능력, 또는 상황과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된다(Rychen & Salganik, 2003).

국내에서도 생애나 생활 영역으로 확장한 역량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2~2004년에 걸쳐 전 생애에 걸친 핵심능력을 ‘생애능력’으로 명명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생애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으며(유현숙 외, 2002; 유현숙 외, 2004), DeSeCo의 역량을 활용하여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이 개발되기도 하였다(김기현 외, 2008; 김기현 외, 2009)

2) 청소년 역량의 개념 및 특징

청소년 역량의 개념은 최근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 관점의 청소년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정의로 연구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 개발적 관점의 정책은 문제 중심적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적 차원의 소극적 정책을 뛰어 넘어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인간 개발적 관

접 정책과 맞물려 발전하였다(천정웅, 2009). 따라서 청소년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므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발달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자아개념, 동기, 내면적 특질을 청소년의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김기현 외(2008)은 청소년기의 핵심 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가정에서도 학습될 수 있는 것”(김기현 외, 2008, p.89)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핵심역량으로 DeSeCo의 영역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정책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PISA, ALL, ICCS 2009 등 국제자료를 활용하여 국제비교 분석 연구를 하였다(김기현 외, 2010).

한편 윤명희·김진화(2008)는 청소년의 역량을 생활역량으로 보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p.178)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생활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자기성장, 자기조절, 공동체, 상황대처,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총 22개의 생활기술로 구성되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 역량의 개념은 역량기반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역량을 측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여(윤명희·장아름, 2008), 이들을 위한 잠재성을 개발을 위한 역량의 활용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김기현 외(2009)는 생활역량에서 자율적 행동하기 영역의 척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적 행동역량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다양한 변인들, 즉 진로 계획,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자율적 행동역량이 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임을 확인하고 강조하였다.

생활역량이외에도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김영인(2010)은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해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춰야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습득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범을 지키는 실질적인 참여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시민역량의 하위요소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 참여·행동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고 현재의 사회, 즉 민주사회, 정보사회, 다문화 사회 등에서 시민역량의 하위요소들은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병렬적으로 발달해야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졌는데 진로개발은 단순한 진로지식의 습득정도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였다(류재운·이유경, 2012).

이처럼 청소년 역량은 다양한 청소년 개발 목적에 따라 연구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역량연구가 중등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기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의 역량과 연계되는 청소년 역량 발달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3) 연구 주요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과 역량의 개념을 결합시켜 청소년 전기, 중기, 후기에 이르는 필요 역량을 도출하여 발달 단계별 중요한 역량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개개인의 계발에 목적이 있는 동시에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 핵심역량은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이 모두 갖추 수 있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역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역량의 대상이 성장하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보고 역량의 개념을 요구 지향적(demand-oriented)으로 정의할 때 청소년들이 현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동시에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역량의 특성을 지닌다.

셋째, 청소년 역량 개발의 대상은 개인차원적 역량인 동시에 집단, 사회, 국가 차원적 역량이어야 한다. 청소년 역량은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며 성숙한 자아를 갖기 위한 핵심능력이며 동시에 부모, 친구, 시민 등 가정적,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할 관계적 역량, 시민적 역량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청소년 역량 연구의 주요 이슈

국내 청소년 역량 연구는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개발한 ‘학생 역량 연구’와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개발한 ‘청소년 역량’, 노동부 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등의 연구로 추진되었다.

기존의 대부분의 청소년 역량에서는 국가 수준의 생애핵심역량으로 청소년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13)은 학생으로서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학생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부(2013)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인성역량을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인성역량은 자신 개인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 즉, 개인 간 관계를 통한 사회, 세계에서 자기를 조절·통제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더불어 세계에 이로울 올바른 인간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최근 국내에도 선풍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국가직무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내 대학들에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도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의 생애 핵심 역량 분석

본 역량은 현재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된 핵심역량 개념 중의 하나인 OECD의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를 기준으로 핵심역량에 접근하였다. OECD에서는 이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을 규명한 바 있으며(OECD, 2005a),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다(Eurydice European Unit, 2002). 한편,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천수단과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과지식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생애 핵심 역량은 OECD의 지적도구활용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영역 외에 사고력을 추가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그 하위영역 및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지표	하위 영역	하위 요소
지적도구 활용 영역	언어, 상징 문자	읽기능력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듣기능력 외국어능력
	지식, 정보	수리능력 과학능력
	기술	정보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 기타능력(그밖의 도구활용 관련요소)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적극적 경청 사람신뢰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시민의식(정치관심, 종교이해, 권리책임, 민주적 절차) 소속감(학교) 만족감(삶의 만족도, 행복도)
	사회적 협력	사회적 역할이해/ 사회적 책임감
	갈등 관리	문제인식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다수정당 존재이유
자율적 행동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의 결과 인지 행동의 선택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흥미이해 규칙과 원리 이해 욕구, 권리 대안 제시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인지적 차원)	해석 추론 분석 평가

		설명
	비판적 사고성향(정의적 차원)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신뢰성

2) 한국교육개발원(2002)의 생애 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존의 청소년 역량으로서 생애능력을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야 할 핵심 능력’으로 정의하고, 기초문해력, 핵심능력, 시민의식, 특수직업관련 능력의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유현숙, 2002).

<표 II-2> 한국교육개발원의 생애능력 영역체계

생애능력	정의
기초문해력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Read, wRite, aRithmetic)로서 모든 학습과 이를 통해 육성되는 여타의 주요 능력 신장을 위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핵심능력	전체 학습단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핵심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태도 요인을 의미하며, 도덕성, 질서의식, 책임감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란 개개의 인적 자본을 네트워크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능력
직업특수능력	세 가지 요인 이외에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서 요구되는 특수직무능력(job specific competency)을 의미하며, 특정한 직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요인을 포함하는 직무수행능력

<표 II-3>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영역 및 하위영역

영역(4)	하위영역(10)
기초 문해력	읽기
	쓰기
	셈하기

핵심능력	의사소통능력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 능력
	문제해결능력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최적안 선정
		계획 수립과 실행
		수행평가
	자기 주도적 학습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
직업특수능력	특정직업이나 직종에서 요구되는	특수 직무능력(job specific competency)
시민의식	국가정체성	국가의식
		역사의식
	신뢰 및 가치공유	신뢰
		기회균등
		민주적 가치 및 다양성
	권리 · 책임의식	준법의식
		도덕성 및 양심
	참여의식	보수적 · 사회 변혁적 참여
		지역사회참여

3)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학생 역량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생역량은 학생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며, 배우는 존재로서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현재 사회와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하며, ‘학교’라는 영역에서 국가 책무로서 집중 육성해야 하는 역량이다.

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역량, 정신역량, 지적역량, 진로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역량 등의 6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핵심역량지수(대영역) 개념 및 선정 근거

구성요소		개념 및 선정 근거
신체 역량	개념	·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근거	·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정신 역량	개념	·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근거	· 신체와 함께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은 교육기본법, 교육과정총론에서 강조
지적 역량	개념	· 사물, 대상,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익히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
	근거	· 인간의 삶은 사고와 행동으로 구성되고, 사고는 인간의 삶의 지배하는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 학생은 배움의 존재로서 학습을 위해 사고능력, 학습능력 등 지적 능력이 특별히 중시되는 시기 · 지적 역량은 넓게 볼 때 정신역량에 속하나,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함
진로 역량	개념	·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알고,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
	근거	· 학생의 미래 삶의 세계와 직업세계 준비에서 핵심적인 역량 · OECD-DeSeCo,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
대인관계 역량	개념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근거	·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 ICCS 등 대부분의 역량 논의에서 핵심 역량으로 간주
시민 역량	개념	·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근거	· 국가사회적 요구에서 핵심적으로 간주되는 역량 · 대부분의 선진국 교육과정 및 국제비교조사에서 핵심역량으로 파악

<표 II-5>학생역량지수(소영역) 개념 및 선정 근거

대영역	소영역 구성요소		구성근거
신체 역량	체력	개념	· 인간 신체활동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
		근거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 · <학교보건법>제 7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
	체격	개념	· 근육, 골격, 영양 상태로 나타나는 몸 전체의 외관적 형상으로 서 건강한 신체의 외형을 구성하는 요인
		근거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 · <학교보건법>제 7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
	영양	개념	·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외부에서 섭취하여 소화, 흡수, 순환, 호흡, 배설을 하는 과정으로서 신체건강의 핵심 요소
		근거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

	협동력	개념	·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근거	· OECD-DeSeCo, ICCS에서 강조된 역량
	갈등해결 역량	개념	·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거	· OECD-DeSeCo, ICCS에서 강조된 역량
시민 역량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역량	개념	· 시민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근거	· 시민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 역량 · 대한민국 헌법 · 교육기본법 제 2조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 OECD-DeSeCo, ICCS에서 강조된 역량
	사회참여 역량	개념	· 학교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근거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 OECD-DeSeCo, ICCS에서 강조된 역량
	규칙준수 역량	개념	· 공동체 구성원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준수하는 능력
		근거	· 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질 ·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강조된 역량

<표 II-6> 학생역량 지수체계(전체)

대영역	소영역	지표	데이터	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신체 역량	체력	· 운동 실천율	· 주3일 이상 운동실천 비율	0	0
		· 체력 수준	· 체력지수	0	0
	체격	· BMI 지수	· 적정 체중 비율	0	0
	영양	· 영양 및 식습관	· 패스트푸드섭취 비율	0	0
		· 아침식사 여부	· 아침식사 비율	0	0
정신 역량	정신건강역량	· 우울감 수준	· 우울감 비율	0	0
		· 불안감 수준	· 불안감 비율	0	0
		· 공격성 수준	· 공격성(분노감) 비율	0	0
		· 학업스트레스관리 수준	· 학업스트레스 비율	0	0
	자율역량	· 자기주도성 수준	· 자기주도역량 수준 비율	0	0
		· 자기통제 수준	· 인터넷의존 비율 · 스마트폰의존 비율	0	0

	긍정적 자아역량	· 행복도 수준	행복감 비율	0	0
		· 자아존중감 수준	· 자아존중감 비율	0	0
		· 자기효능감 수준	· 자기효능감 비율	0	0
지적 역량	창조적 역량	· 문제해결능력	· 문제해결능력 수준 비율	0	0
		· 창의력	· 창의력 수준 비율		0
	정보역량	· 정보활용능력	· 정보활용능력 수준 비율		0
	학습역량	· 학업기초 수준	· 기초학력 미달 비율	0	0
진로 역량	자기이해역량	· 자기이해 수준	· 소질, 적성 파악 비율	0	0
	진로탐색역량	· 진로계획역량	· 진로계획역량 수준 비율	0	0
		· 진로선택역량	· 진로선택 및 결정 역량 수준 비율	0	0
	진로준비행동 역량	· 진로준비행동역량	· 진로준비행동역량 수준 비율	0	0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역량	· 공감능력 및 수 용성	· 공감능력 및 수용성 수 준 비율	0	0
		· 관계역량	· 긍정적 친구관계 비율	0	0
			· 긍정적 교사관계 비율	0	0
			· 긍정적 부모관계 비율	0	0
		· 의사소통역량	· 의사소통역량 수준 비율	0	0
	협동력	· 사회적 협력 수준	· 사회적 협력 수준 비율	0	0
	갈등해결역량	· 갈등해결역량 수 준	· 갈등해결역량 수준 비율	0	0
시민 역량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역량	· 공동체성 수준	· 신뢰 수준 비율	0	0
			· 배려정신 비율	0	0
			· 약자보호 정신 비율	0	0
			· 양성평등 태도 비율	0	0
		· 다문화수용성 수 준	· 다문화수용적 태도 비율	0	0
			·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태도 비율	0	0
	사회참여역량	· 사회참여 수준	· 캠페인 활동 비율	0	0
		· 학교참여 수준	· 학생자치활동 비율	0	0
	규칙준수역량	· 규칙준수 수준	· 규칙준수 비율	0	0

4) 교육부(2013)의 인성역량 분석

본 역량은 인성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에 발표했던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방안 연구’에 근거하여, 인성의 하위 영역으로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인성은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가 인성의 개념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강선보 외, 2008)되어 있으며, 인성은 개인의 총체적인 경향을 띄고 있음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즉, 자신 개인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 즉, 개인 간 관계를 통한 사회, 세계에서 자기를 조절·통제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더불어 세계에 이로울 올바른 인간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시대적 맥락과 결부지어 생각해 보면, 21세기 미래 사회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정직과 책임, 도전과 자율 등 사회성, 감성,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덕성은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도덕성의 세부 영역으로는 정직, 책임, 윤리가 포함되었다. 사회성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 파악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세부 영역으로는 배려(봉사)와 공감으로 구성되었다. 감성(정서성)은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며,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 및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세부 영역은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기조절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학생이 처하게 되는 상황의 차원(개인, 대인관계, 세계 사회)과 인성교육의 차원(지식, 태도, 행동)을 종합하여 본 인성지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II-7> 인성의 구인 설정 및 개념

영역	구성요인	내용
도 덕 성	정직/정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책임	자기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수행하려는 태도
	윤리 (어른공경)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와 윤리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

영역	구성요인	내용
사회성	배려/봉사	팀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우려난 마음에서 타인을 도와주려는 행동. 혹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롭게 활동을 수행하려는 태도
	공감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감성(정서성)	긍정적 자기이해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정도)를 반영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판단
	자기조절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성질 혹은 특성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의 직업기초능력 분석

본 역량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의 10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하고, 43개의 하위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표 II-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미래 한국인 핵심역량 영역 및 하위요소

영역(10)	하위요소(43)
창의력	창의적 사고 기능
	창의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
	해결방안의 탐색
	해결방안의 실행과 평가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정보처리능력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활용
	정보윤리
	매체 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협동
	갈등관리
	관계형성
	리더십
자기관리능력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선용
	건강관리
	합리적 경제생활
	기본생활습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기초학습능력	기초적 읽기
	기초적 쓰기
	수리력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준법정신
	환경의식
	윤리의식
	봉사정신
국제사회문화이해	우리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문화 향유능력
	국제사회 이해
	외국어 소양
진로개발능력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의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으로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로 구분하여, 6개의 역량과 24개의 하위 영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9> K-CESA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구분	영역(6)	하위영역(24)
인지적 요소	의사소통	듣기
		토론과 조정
		읽기
		쓰기
		말하기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	자원: 시간, 예산, 인적, 물적
		정보: 문자, 숫자, 그림
		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 기기작동
	종합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외국어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비인지적 요소	대인관계 및 협력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
	자기관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목표 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직업의식

7) 노동부(2006)의 기초직업능력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기초직업능력표준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의 10개 영역의 역량과 34개의 하위 능력을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0> 노동부 기초직업능력표준 영역 및 하위능력

영역(10)	하위능력(34)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자원 관리능력
	예산자원 관리능력
	물적자원 관리능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정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 이해능력
	경업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8) 그 밖의 국내 핵심 역량 분석

국내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학습 능력, 창의성,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가치관 및 태도 등의 7개 역량으로 구성되고, 20개 하위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11>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김동일 외, 2009)

핵심역량	하위 범주 능력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기초
	전공분야 지식의 실용적 적용
논리적 사고력	종합적 · 통합적 사고력
	분석력
	합리적 판단력
학습 능력	외국어 능력
	정보처리기술 및 활용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새로운 사고
	적응력
리더십	의사결정능력
	추진력
	전체 조망 능력
	도전정신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
	개방성
가치관 및 태도	공동체 의식
	도덕성
	배려

9) 연구의 주요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고찰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와 같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 역량 연구들의 공통점은 OECD의 지적도구활용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영역 등을 핵심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밖에 몇 가지 영역을 추가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지적도구 활용 영역,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등은 가장 공통적인 역량으로 도출되었다(86%). 셋째, 문제해결능력(71%), 대인관계능력 및 국제사회이해 역량(57%)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넷째, 사고력, 도덕성, 신체역량, 시민의식(국가정체성, 신뢰 및 가치 공유, 직업윤리), 공감 등도 새로운 역량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청소년 역량에 대한 문헌고찰 종합 분석

영역	하위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교육개발원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부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노동부 (2006)
지적도 구활용	언어	○	○	○		○	○	○
	지식	○		○			○	○
	기술	○				○	○	○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		○				
	사회적 협력	○		○			○	
	갈등 관리	○		○				
	의사소통능력		○	○	○	○	○	○
	배려/봉사				○	○		
	공감			○				
자율적 행동	대인관계능력			○		○	○	○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자기관리)	○	○	○		○	○	○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	○			○		
시민의 식	진로개발능력			○		○		
	국가정체성		○					
	신뢰 및 가치공유		○					
	참여의식		○	○				
	공동체의식			○		○		
	국제사회문화 이해			○		○	○	○
	직업윤리							○

감성(정서성)	긍정적 자기이해			○	○			
	자기조절			○	○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	○	○	○		○
	비판적 사고력 (인지적 차원)	○						
	비판적 사고성향 (정의적 차원)	○						
	창의력			○		○		
도덕성	정직/정의				○			
	책임				○			
	윤리 (어른공경)				○			
신체	체력			○				
	체격			○				
	영양			○				

4. 국외 청소년 역량에 대한 연구 동향

1) 국외 청소년 역량 연구의 주요이슈

가. 청소년을 포함한 생애핵심역량 개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전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던 개인의 능력과는 현저하게 다른 능력을 요구하여, 읽고, 쓰고, 셈하기 등의 기초능력을 넘어서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ability)이나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ability)과 같은 고차원적인 능력들이 요구되었다(Canto-Sperber & Dupuy, 2001).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등지의 국가들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새로운 능력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능력들을 규명하려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는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로써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 개념은 역량의 발현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상황(context)과 요구상황,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는 심리사회적 특성(psychosocial prerequisites)이 유능한 성취 또는 효과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Rychen & Salganik, 2003). 생애핵심역량은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역량 영역에 각 3가지의 하위역량을 구성하여 총 9가지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OECD에서 합의한 핵심역량의 개념 및 요소들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능력지표를 개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이종재, 송경호,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3년 미국 NIFL(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과 NECP(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간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EFF(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는 가족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Merrifield, 2000). EFF 프로젝트에서는 가족, 시민,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13가지의 공통 활동(common activities)과 16가지의 일반기술(general skills)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생활전반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FEU(Further Education Unit)에서 학생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풍부한 직업적인 기회를 지니는데 필수적인 10가지 영역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Haworth & Browne, 1992). FEU에서 제안한 핵심역량 영역은 개인적 발달과 진로발달능력, 산업·사회·환경에 대한 연구 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능력, 수리 능력, 과학과 기술능력, 정보기술능력, 창조적 개발능력, 실천능력, 문제해결 능력이며, 각각의 영역별로 하위능력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아동역량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개발하였는데 인지역량, 신체역량, 사회역량, 생활역량, 종합적 자기평가 역량 5가지 영역에 대해 각각 하위역량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아동역량척도는 일본아동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역량에 의지 및 욕구, 시간관리, 성실성 등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자아효능감, 감정 및 태도, 문제행동 등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김기현 외, 2008).

나.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국외 청소년 역량 연구 관련 주요 이슈 두 번째로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기반 학습체제로 전환 중 에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유럽교육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활동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핵심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기현, 2009; Eurydice European Unit, 2002).

〈표 II-13〉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 중인 국가들

	범 교과 접근	교과 중심 접근	종합적 접근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주)	• 영국 • 뉴질랜드 • 호주(빅토리아주) • 캐나다(퀘벡주)	• 일본	• 포르투갈 • 벨기에 (프랑스어권)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넣을지 논의중인 국가(주)	• 영국 (북아일랜드)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 벨기에 (독일어권)	• 덴마크 • 오스트리아 • 룩셈부르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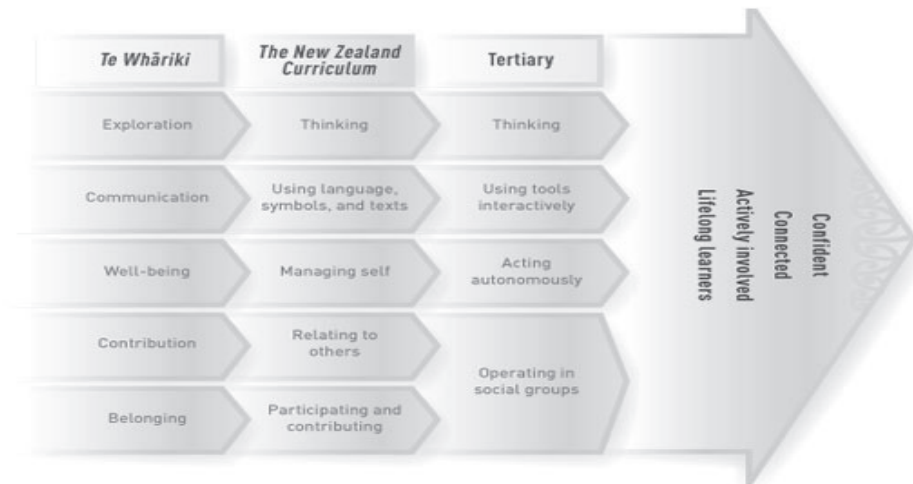
주: 범교과접근 - 특정교과를 넘어 포괄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교과중심접근 - 개별 과목들 내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종합적접근 - 두가지 측면을 모두 추진하는 경우

출처: 김기현(2010), Eurydice European Unit(2002), Ministry of Education, NewZealand(2007), Ministère de l'Éducation(2001), VCAA(2004), 文部科學省(2008).

뉴질랜드는 기존의 공교육체계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프레임으로 개혁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의 목표를 다음의 5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유아교육-초·중등교육-고등교육을 통해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기현, 2010). 교육부의 안내서에서도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프레임은 평생학습을 전제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5가지핵심역량은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으며 하나의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출처: <http://nzcurriculum.tki.org.nz/Curriculum-documents/>

호주는 1989년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8개의 핵심학습영역(KLA: Key learning area), 즉 영어, 수학, 과학, 보건체육교육, 외국어, 예술, 사회와 환경, 기술을 설정하였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러한 KLA 중심의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들을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고 2006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지원에서 10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핵심적인 것을 서술한 것으로 ‘빅토리아의 핵심 학습기준(VELS: 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이라 불린다. VELS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II-14〉 VELS의 구조와 내용

요소	영역	내용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학습	건강과 체육교육	운동 및 신체적 활동 건강지식 및 증진
	대인관계 발달	사회적 관계형성 팀 작업
	개인적 학습	개별 학습자 자신의 학습관리
	시민성	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이해 지역사회 참여
학문 기반 학습	예술	창조하고 만들기 탐색하고 반응하기
	영어 제2외국어	읽기/쓰기/말하기와 듣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이문화간 지식 및 언어인식
	인문학 (경제, 지리, 역사)	경제 지식과 이해 경제 추론과 해석 지리 지식과 이해 지리공간적 기술 역사적 지식과 이해 역사적 추론과 해석
	수학	수/공간/측정, 확률과 통계/구조/수학연구
	과학	과학지식 및 이해 과학 연구
간학문적 학습	의사소통	듣고 보고 반응하기 표현하기
	디자인, 창의성, 공학	탐색하고 설계하기 만들어내기 분석하고 평가하기

	정보통신 기술	시각적 사고를 위한 ICT 창조를 위한 ICT 의사소통을 위한 ICT
	사고력	추론, 정보처리, 탐구 창의성 반성, 평가, 초인지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을 포함하면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수월성을 높이며 현재 직면한 사회에 필요한 기능, 즉 핵심기능을 도입하였다. 영국교육은 일과 교육 및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6가지의 핵심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김경훈, 2012).

〈표 II-15〉 영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기능

핵심기능	의미
Communication	• 장기전망 속에서 행동하기 • 인생의 계획과 개인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기 •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Application of number	•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하도록 활용하는 능력 • 기술을 상호작용하도록 사용하는 능력
Information technology	• 타인과 관계 맺기 • 팀 속에서 일하고 협동하기 •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Working with others	• 소규모 혹은 전체 집단에 기여하기 • 타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Improving own learning and performance	• 자신의 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계획하기
Problem solving	• 문제의 도전에 대응하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및 검토
Thinking skills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하기

캐나다 퀘벡 주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방향과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퀘벡 주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김경훈, 2012).

〈표 II-16〉 캐나다 퀘벡 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

구분	핵심역량
범교과적 역량	• 지적역량 • 방법론적역량 • 개인적 사회적 역량 • 의사소통 관련 역량
광범위한 학습영역	• 건강과 웰빙 • 개인적 직업적 계획 • 환경 의식 및 소비자 권리와 책임 • 미디어 리터러시 • 시민성과 공동체 삶
교과영역	• 언어 • 수학, 과학 및 공학 • 사회과학 • 예술교육 • 개인발달

독일 브레멘 주의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본 입장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해 네 가지의 행도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방법적 역량, 그리고 학습역량이며 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김경훈, 2012).

〈표 II-17〉 독일 브레멘 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

구분	핵심역량
학습역량	• 관계 찾아 만들고 생산하기 • 공식화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기 • 설립가설 형성 및 확인하기 • 작업의 비판적 사고로 가치있게 형성하기 • 더 자세한 질문하기 • 중요한 사항을 분리하기 • 전체 문맥에서 정보 찾기 • 창의적 해결책을 보유하기
방법적 역량	• 관측방법 • 구성과 재구성 방법 • 프레젠테이션의 방법 • 발견과 실험 방법

	• 수집과 준비 방법 • 평가방법 •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작업 방법 • 주제별 작업 방법 • 창의력 향상 방법 • 문제해결방법 •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법 • 학습과 연습방법
사회적 역량	• 새로운 관심갖기 • 서로서로 존중하기 •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 서로돕기 • 일반적 규칙 동의하고 준수하기 • 팀 분류하기 • 공통의 작업을 침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 비판 수용과 다른 사람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기 •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응하기
개인적 역량	• 자신의 성공을 인식하고 즐기기 • 자신의 능력신뢰 • 독립적으로 작업하기 • 외롭게 결정하기 • 자신의 실천계획과 비판적 검토 •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 • 자신의 다양한 개성알기 • 상황에 따라 주도하기 • 불안감 처리하기 •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도전하기 •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기

다. 청소년 핵심역량 국제 조사연구

국외 청소년 역량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을 포함한 인적자원의 능력을 지표화하고 측정함으로써 각 나라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1987년부터 국가교육체계지표(Indicators of National Education Systems)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의 능력들을 지표화하고 측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성인의 문해력과 생애능력을 측정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한 ALL(Internationa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그리고 시민의식 교육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ICCS 등이 수행되었다.

국제 성인 문해력조사(IALS: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s)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수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ALL 조사를 수행하였다(OECD, 2005). 2000년 이후 성인대상 조사가 ALL로 바뀐 이유는 성인의 읽고 쓰는 기초 능력 외에도 다른 생활기술이 직업 현장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김태준 외, 2002). 이에 따라 ALL은 기초 문해력 외에 문제해결(problem solving), 협동(teamwork),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등의 생애기술을 추가하여 조사였다. 최근 OECD는 새로운 성인 대상 조사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를 2007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성인들의 인지능력만이 아니라 태도에 해당되는 특성까지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ECD의 이러한 노력은 핵심역량이 개인과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의 핵심역량을 측정함으로써 각 국가별 인적자원의 질적인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PISA는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역량, 즉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해력(literacy)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채선희 외, 2003).

IEA는 10년 주기로 시민의식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에는 시민교육성취도(CIVED)를 실시했으며 2009년에는 이를 확장 발전시켜 ICCS를 실시했다. ICCS 2009는 각국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지식 및 태도를 측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타인, 공공기관, 기업, 정치인, 단체 등)에 대한 신뢰와 참여의지와 같은 시민성(citizenship) 수준에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 속에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관련한 교육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같은 환경맥락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IEA는 본 조사에 참여한 39개 국가 청소년들에 대한 엄정한 표집과 문항구성 및 비교절차를 통해 상기 요소들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측정결과와 평균과 국가간 비교결과를 2010년 7월에 공개하였다.

2) 국외 청소년 역량체계분석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생애핵심역량이란 생활 장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 Salganik, 2003). DeSeCo 프로젝트는 핵심역량을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이다. 독활용 부문의 경우 OECD차원에서 독해력(prose literacy), 문서이해력(document literacy), 수리력(numeracy) 등 구체적인 지표에 대해서 지필고사 형태로 청소년 대상의 PISA나 성인대상의 IALS, ALL 등의 국제비교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김기현, 2010).

〈표 II-17〉 DeSeCo의 핵심역량의 하위요소

핵심역량	정의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출처: 김기현(2010), Rychen & Salganik(2003)

핵심역량 영역체계에 관한 또 다른 분류는 미국의 EFF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EFF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영역체계는 16가지 역량요인에 대해서 4가지의 포괄적인 틀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영역틀은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의사결정 기술(decision-making skills),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평생학습기술(lifelong learning skills)등이다(김기현, 2010).

〈표 II-18〉 미국 NIFL의 EFF Standards

하위영역	측정
의사소통기술 (5 skills)	읽기(Read with understanding) 쓰기(convey ideas in writing) 말하기(Speak so others can understand) 듣기(Listen actively) 관찰(Observe critically)
의사결정기술 (3 skills)	수리력(Use Math to solve problems and communicate) 문제해결력(Solve problems and make decisions) 계획(plan)
대인관계기술 (4 skills)	협력(Cooperate with others) 지지와 영향(Advocate and influence) 갈등해결과 협상(Resolve conflict and Negotiate)
평생학습기술 (4 skills)	학습책임감(Tak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반영과 평가(Reflect and Evaluate) 조사를 통한 학습(Learn through Research) 정보 및 의사소통기술의 사용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영국은 FEU(Further Education Unit)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풍부한 직업적인 기회를 지니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경험이나 능력을 100여개 이상 추출한 뒤,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Harworth & Brown, 1992). FEU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개인적 발달과 진로발달능력, 산업·사회·환경에 대한 연구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능력, 수리능력, 과학과 기술능력, 정보기술능력, 창조적 개발능력, 실천능력, 문제해결능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역별로 하위능력을 제시하고 있다(김기현, 2010).

〈표 II-19〉 영국 EFU의 생애역량 영역체계와 하위능력

핵심역량영역	하위능력
개인적 발달과 진로발달능력	개인적 발달(Personal Development)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 도덕과 윤리(Morals and Ethics)
산업, 사회, 환경에	일의세계(World of Work)

대한 연구능력	정치적 고려사항(Political Considerations) 경제적 고려사항(Economic Considerations) 법적 고려사항(Legal Considerations) 사회적 고려사항(Social Considerations)
의사소통능력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의사소통과 해석(Communication and Interpretation)
사회적 능력	집단내 작업(Working in Groups) 분석과 평가(Analysis and Evaluation) 역할 확인(Role Identification) 집단의 범주(Categories of Groups)
수리능력	수리개념(Numerical Concepts) 공간개념(Spatial Concepts)
과학과 공학능력	과학과 공학의 이해(Appre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공학을 문제에 적용(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blems) 과학(Science) 공학(Technology)
정보공학능력	자료 처리(Data processing) 정보 공학의 응용(Application of IT)
창조적 개발능력	창조적 과정의 인식(Appreciation of Creative processes) 창조적 과정의 적용(Application of Creative Processes) 중요한 설비의 개발(Developing Critical Facility)
실천능력	직무에 적절한 능력(Matching Skills) 실행 능력(Practising Skills) 수행평가(Evaluation of Performance)
문제해결능력	탐색(Exploration) 개발(Development)

출처: Haworth, D. & Browne, G. (1992).

일본에서도 핵심역량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勝俣(2000)가 Harter에 의해 개발된 아동역량척도(인지적역량, 사회적역량, 신체적역량, 종합적 자기평가역량)에 의지, 의욕 그리고 시간관리 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하여 일본식 역량척도를 개발하였다(김기현, 2010).

〈표 II-20〉 일본의 역량척도

영역	구성내용
인지역량	감각 및 지각능력, 언어능력, 사고능력, 주의력, 대상인지능력, 기억력, 학습능력, 계획능력
신체역량	신체적형태(신장, 체중 등), 생리적 기능(내분비, 성적성숙, 자율신경 등), 운동능력, 신체적 건강, 신체적 행동
사회역량	자기개방성, 우호성, 협조성, 사회적 교류, 친구관계
생활역량	의지 및 의욕, 자기관리(시간관리, 자율성, 책임, 인내심, 경제감각 등), 성실성(근면)
종합적 자기평가역량	정서적 안정(애정, 수용, 승인), 자신감(효능감, 유능감)

출처: 勝俣(2000)

3) 연구의 주요 시사점

국외 청소년 역량 관련 연구들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에는 현재시점에서 청소년이 처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생애(life)’의 개념을 감안하여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국외 연구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DeSeCo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생애라는 관점에서 역량을 도출하고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도 개편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발달단계로써 청소년기에 접합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 역량에는 청소년들의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를 초점으로한 특성화된 역량 개발 연구보다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주를 두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되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포함하도록 해야겠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3 장 연구방법

1. 국내외 문헌 분석

- 청소년역량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역량 및 하위영역 개념설정 및 범주화
 - 국내외 청소년의 역량의 정의, 역량 측정의 필요성, 역량 개발의 효과, 역량의 활용, 측정 지수사례에 관한 단행본 및 연구물을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개념 도출
 - DeSeCo Project, Life Skills, 뉴질랜드 교육과정 등의 선행문헌 분석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참고자료로 활용
 - 해외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사례의 발굴을 통해 본 연구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한 방향 제시
 - 청소년역량지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역량지수(안) 및 하위영역(안) 개발
- 메타 분석
 - 국내외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한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대학생 직업기초능력 분석, 청소년 패널 분석, PISA 분석, PIAAC 분석 등)

2. 청소년 주요 역량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역량 및 역량지수의 개념정립 및 객관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
- 제1차 자문회의: 청소년역량 개념 및 하위영역 확정과 청소년역량 지수(초안) 개발
- 제2차 자문회의: 예비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집대성하기 위해 청소년역량지수(안) 개발

3. 델파이 조사(1,2,3차)

- 청소년 관련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하되 정책 도출과 관련되어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및 실무인사로 구성함
- 소속으로 대학교, 연구소, 청소년 문화센터장, 민간 청소년 활동 분야 관련자로 함
- 1차 조사는 청소년 역량의 주요 지수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의견을 수렴하되 하위 요소지수 도출도 병행
- 2차 조사는 정해진 상위 역량 지수에 맞는 하위 요소 지수 도출 및 역량 모델 타당성 검증
- 3차 조사는 개발된 역량에 대한 가중치 분석: 역량간, 청소년 시기별 가중치

4. 토론회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역량 개념 및 하위영역 확정을 위한 학문적·실천적 논의의 장 마련
- 토론회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목 적	청소년역량 개념 및 하위영역 확정	
패 널	학계전문가 2인 현장전문가 2인	
방 법	연구진 초안 발표 및 토의	
장 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청소년 역량지수 타당성 예비조사

- 토론회 등을 통해 개발된 청소년역량지수(초안)을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예비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통하여 청소년역량지수(안)을 수정보완함.
- 설문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표본수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150명	
표집방법	임의표집	

6. 공청회

- 청소년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및 개발된 청소년역량지수(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공청회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목 적	청소년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및 청소년역량지수(안) 검토	
패 널	학계전문가 2인 현장전문가 2인 청소년 1인	
방 법	연구진 안 발표 및 토의	
장 소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7. 청소년 역량지수 타당성 본 조사

- 본 연구를 개발된 청소년역량지수(수정 안)를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함.
- 이를 통하여 청소년역량지수 최종안을 도출함.

○ 설문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표본수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300명	
표집방법	임의표집	

제 4 장

연구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및 측정도구 개발

제 4 장

연구결과

: 청소년 역량지수 및 측정문항 개발

1.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의 기본관점

○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적 특성(Intrapersonal competency)

- 청소년의 특성: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과 성인의 두 영역이 교차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남
-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중요도가 성장 및 발달 시기별로 달라짐
- 청소년의 정의: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확장(Interpersonal competency)

- 개인, 가정수준에서 또래, 학교(또래, 교사), 조직, 사회, 국가, 세계수준으로 사회적 관계의 확장

○ 현재사회와 미래사회의 특성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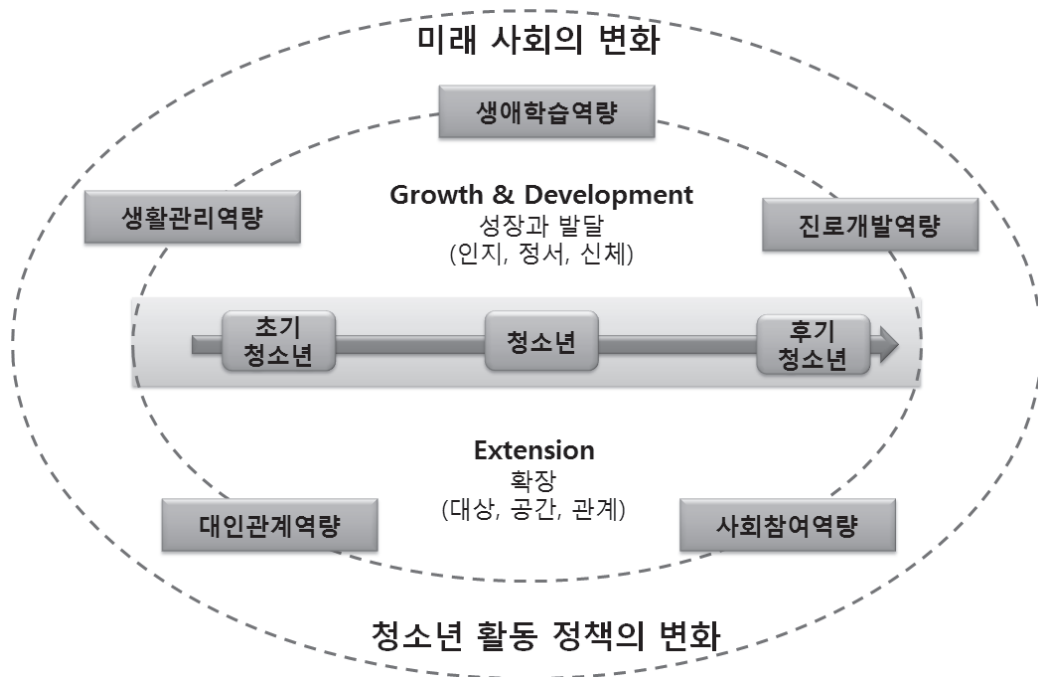
- 현재 사회, 현재의 발달시기에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과 미래사회와 성인기에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청소년 역량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

2. 청소년 역량지수 개념 및 구성 체계

1) 청소년 역량의 개념

청소년 역량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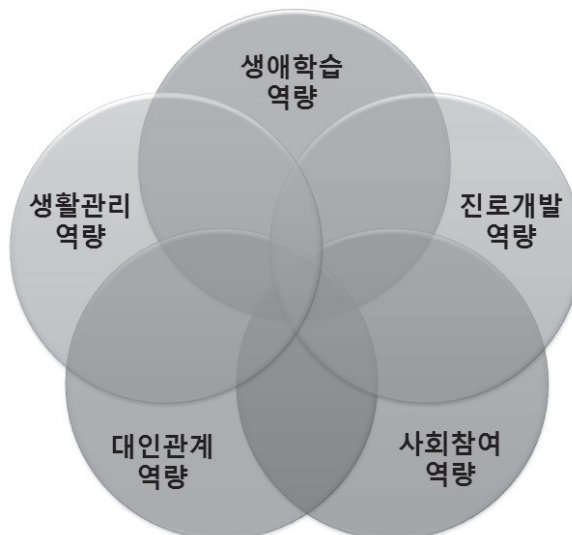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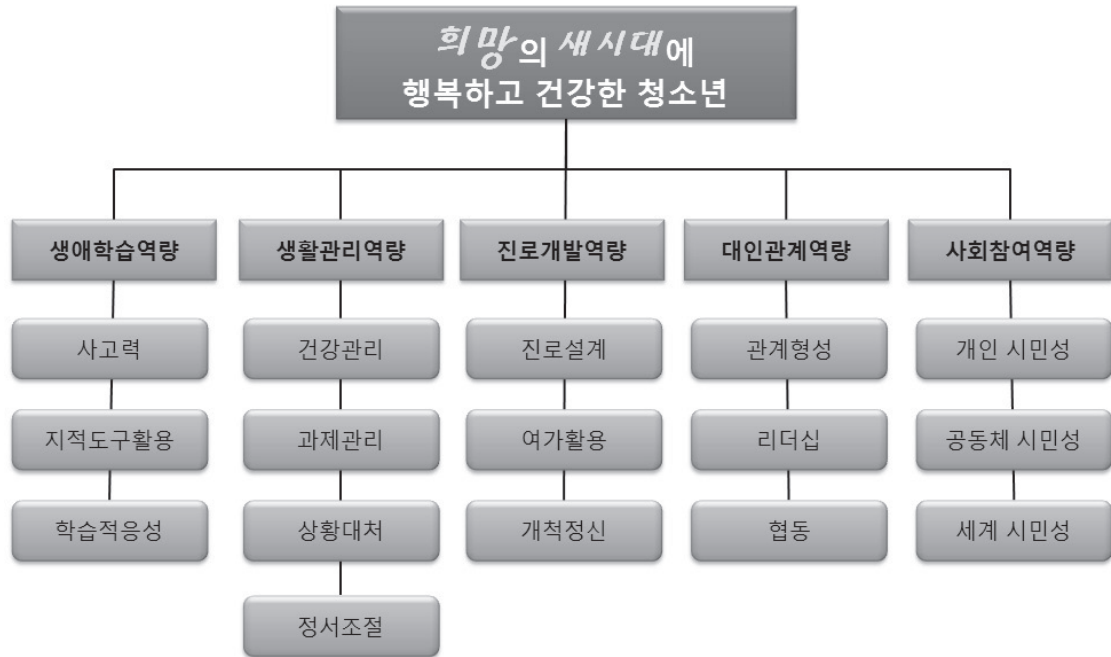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역량지수 개념모형

2) 청소년 역량지수의 핵심개념

-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



3)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 체계



[그림]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

〈표 III-1〉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변화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지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지속학습역량	생애 학습역량	3	3	9	9
자기관리역량	생활관리역량	5	4	16	13
자기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	3	3	10	9
대인관계역량	대인관계역량	3	3	12	10
시민참여역량	사회참여역량	3	3	15	9
합계		17	16	62	50

〈표 III-2〉 청소년 역량지수의 영역 및 세부지표의 개념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생애 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사고력(Thinking)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천하는 능력	통합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오현석 외, 2013)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Beyer, 1985; Facione, 1990)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 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지적 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김기현, 2009) 수리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종범 외, 2008; 최동선 외, 2008)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김기현, 2009)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어 활용하는 능력(미래인재역량)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마음가짐(tak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미국 EFF)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건강관리(Health)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활용 능력 건강 및 생리적 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신체적 발달 및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신체운동관리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윤명희, 김진화, 2007) • 식습관 관리 능력 식욕을 조절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목표설정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 계획 수립 및 실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자기점검 및 평가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과제관리(Task management) 삶을 위해 행하여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매체중독(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 등)대치능력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매체중독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 • 유해물질(흡연, 음주, 약물, 대마초, 마약 등)대치능력 흡연, 음주, 약물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유혹에 대처하는 능력(윤명희, 김진화, 2007) • 유해행위(가정폭력, 학교폭력, 일반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대치능력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윤명희, 김진화, 2007) • 자아정체성 복잡한 자아인식으로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 일관성 혹은 전체감, 자기통합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능력(박아정, 1996)
	상황대처(Situation handle & management)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진로개발역량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Super, 1957; 김봉환, 2010)	진로설계(Career design)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김봉환, 2010) 여가활용(Leisure use)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Witt & Ellis, 1987)	• 자기효능감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 또는 특수한 환경적 맥락내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자신감을 느끼는 능력(신수경, 민윤기, 2011) • 자아탄력성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키고, 내·외적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으로(Block & Block, 1980),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능력(Block & Kremen, 1996; 김승경, 양계민, 2012에서 재인용) • 감정조절 및 통제 자신의 감정(회노에타)을 사회적 맥락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용하고 표현하는 능력 • 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김봉환, 2006) • 진로 및 직업 탐색 진로·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김봉환, 2006) • 진로결정능력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능력 (김봉환, 2006) • 여가필요성 인식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서동균, 2007) • 여가 조절 여가활동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실천적 능력(서동균, 2007) • 여가 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서동균, 2007)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대인관계역량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	개척정신(Pioneer spirit)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김경훈 외, 2012; 영국 EFU)	• 차별화 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태도 • 도전정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 • 위험감수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실패를 학습으로 인식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상황 (김기현 외, 2010) • 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상황(일본의 역량최도, 2000: 김기현 외, 2010) • 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윤명희, 김진화, 2007: EFF standards)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 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Hollin, 1994; 박지연, 이은희, 2008에서 재인용),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Freshbach & Freshbach, 1982; 장정주, 2012에서 재인용)
	개인 리더십(Self-Leadership)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 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대리는 역량 • 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0)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 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집단 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 집단 촉진
	협동(team work)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 팔로워쉽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Chaleff, 1995)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Kelley, 1992)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김희봉, 송영수, 2013)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Pittman & Irby, 1996)		• 갈등 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EFF standards)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유현숙 외, 2004)	• 권리 의식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주장하는 능력(DeSeCo, 2002, 김기현 외, 2009)
		• 책임감 사회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는 능력(장근영 외, 2011) 또는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ICC, 장근영, 2011)
		• 도덕성 정의로움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능력(김영환, 2011)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춰야 할 역량(유현숙 외, 2004)	• 다양성 존중 집단 간 또는 개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흥미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Pittman & Irby, 1996), 또는 여러 공동체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점들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개인 지각 능력
		• 정치참여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권일남 외, 2011; 유현숙 외 2004),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김기현, 2009)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 사회 봉사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능력(윤평희, 김진화, 2007; 김기현 외, 2009)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	• 국가 정체성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Spencer & Spencer, 1993) • 국제사회에의 공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의 이익 및 인류번영을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김경훈 외, 2012) • 글로벌 의사소통 외국어 또는 현지어를 사용하여 일상과 업무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능력(한상철, 2009; 이광우 외, 2008)

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문가 타당화

역량군	1차		2차		하위역량	1차		2차		세부지표	1차		2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생애학습역량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사고력 (Thinking)	4.52	.602	4.84	.374	• 통합적 사고력	4.24	.944	4.48	.770
										• 비판적 사고력	4.62	.590	4.80	.500
										• 감성적 사고력	4.10	1.136	3.96	.889
					지적도구활용 (Intellectual tools)	4.48	.680	4.72	.678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4.71	.561	4.84	.473
	4.05	1.117	4.56	.651						• 수리능력	4.43	.870	4.56	.583
										• 정보통신활용능력	4.67	.730	4.76	.436
					학습적응성 (Learning adaptability)	3.71	1.146	3.64	.860	• 변화수용력	4.57	.598	4.68	.557
생활관리역량 (Life management competency)										• 지적 호기심	4.19	.873	4.48	.586
										• 학습주도성	4.00	1.049	4.48	.586
						4.24	0.81	4.40	0.64	전체	4.44	0.79	4.56	0.60
					건강관리 (Health management)	4.62	.590	4.83	.381	• 건강 및 생리적 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활용 능력	4.19	1.030	4.52	.510
										• 신체운동능력	4.48	.602	4.64	.638
										• 식습관 관리 능력	4.52	.512	4.76	.436
					과제관리 (Task management)	4.45	.826	4.54	.721	• 목표설정	4.50	.889	4.88	.440
										• 계획 수립 및 실행	4.65	.671	4.84	.473
	4.43	.746	4.72	.458						• 자기점검 및 평가	4.65	.587	4.88	.440
					상황대처 (Situation handle)	4.43	.811	4.58	.717	• 매체중독(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 등) 대처	3.95	1.146	4.12	.927
									• 유해물질(흡연, 음주, 약물, 대마초, 마약 등) 대처	4.05	1.146	4.24	.779	
									• 유해행위(가정폭력, 학교폭	4.15	.988	4.24	.831	

역량군	1차		2차		하위역량		1차		2차		세부지표		1차		2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재관리 (E-c-o-n-o-m-i-c management)	정서조절 (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진로개발역량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력, 일반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대처					
											• 팬덤문화 적응 및 조절	3.33	1.238			
											• 협력적 소비 계획	3.76	1.261			
							4.05	1.071			• 협력적 소비 및 평가 능력	3.89	1.323			
											• 자아정체성	4.35	1.268	4.44	4.44	.870
							4.57	.926	4.72	.542	• 자아효능감	4.40	1.273	4.48	4.48	.823
											• 자아탄력성	4.20	1.240	4.40	4.40	.707
											• 감정조절 및 통제	4.70	.571	4.68	4.68	.627
							4.36	0.82	4.67	0.59	전체	4.20	0.94	4.55	4.55	0.65
											• 자기탐색	4.81	.402	4.96	4.96	.200
대인관계역량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4.29	1.007	4.52	.872	진로설계 (Career design)		4.57	.811	4.84	.374	• 진로 및 직업 탐색	4.67	.483	4.92	4.92	.277
											• 진로결정	4.48	.814	4.80	4.80	.500
											• 여가필요성 인식	4.19	1.030	4.44	4.44	.651
							4.52	.680	4.52	.653	• 여가 자신감	3.67	.966			
											• 여가 조절	4.33	.913	4.36	4.36	.907
											• 여가 몰입	4.10	.831	4.16	4.16	.898
											• 차별화태도	4.00	1.124	4.08	4.08	.909
							4.24	.768	4.24	.831	• 도전정신	4.50	.513	4.56	4.56	.712
											• 위험감수	4.15	.933	4.12	4.12	1.092
							4.48	0.77	4.53	0.62	전체	4.37	0.86	4.49	4.49	0.68
대인관계역량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관계형성 (Social skill)		4.52	1.078	4.84	.473	• 자기개방성	4.48	.750	4.68	4.68	.690
											• 친화성	4.52	.680	4.64	4.64	.757
											• 의사소통	4.52	1.078	4.84	4.84	.374
											• 공감능력	4.81	.402			
											• 공감 및 배려(가족이해, 교우이해)	4.71	.561	4.91	4.91	.294
	4.38	.973	4.72	.542	리더십 (Leadership)		4.38	.973	4.16	.943	• 의사결정	4.62	.740	4.84	4.84	.374
											• 집단활동 관리	4.38	.921	4.44	4.44	.768
											• 추진력	4.38	.805	4.60	4.60	.645
											• 자기확신	4.00	1.140	.00	.00	.000
							4.57	.746	4.80	.645	• 집단 촉진	4.38	.973	4.64	4.64	.638

역량군	1차		2차		하위역량		1차		2차		세부지표		1차		2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개인 시민성 (Personal citizenship)	공통체 시민성 (Community citizenshi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 팔로워십 • 갈등 해결 • 소속감 • 준법 의식 • 권리 의식 • 책임감 • 도덕성 • 민주주의 의식 • 공공선화 • 다양성 존중 • 정치 참여 • 사회 봉사 • 국가 정체성(역사의식 등) • 차별문화 형유 • 국제사회 공헌 • 터문화 이해 • 글로벌 의사소통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참여역량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4.24	1.221	4.56	.583
													4.48	.928	4.68	.748
							4.41	0.87	4.60	0.69			4.38	0.80	4.26	0.53
													4.24	1.091		
													4.57	.676		
							4.43	.746	4.72	.458			4.52	.814	4.80	.408
													4.65	.587	4.83	.381
													4.62	.590	4.83	.381
													4.43	.978		
													4.00	1.183		
전체	4.33	.913	4.72	.542	세계 시민성 (Global citizenship)		4.57	.676	4.80	.577			4.76	.436	4.76	.436
													4.52	.680	4.88	.332
													4.67	.730	4.32	.690
													4.10	.968	4.32	.690
							4.43	.676	4.68	.557			3.55	1.099		
													4.45	.826	4.44	.712
													4.60	.754		
													4.00	1.124	4.28	.678
							4.45	0.83	4.73	0.53			4.34	0.96	4.61	0.52

2) 청소년 역량지수의 가중치 및 청소년 시기별 중요도

핵심 역량 군	역량군 우선순위	하위역량	하위역량 순위	하위역량간 가중치 ¹⁾	청소년 시기별 역량 우선순위 ²⁾		
					초기	중기	후기
생애학습역량	3	사고력	5	0.0758	○	●	○
		지적도구활용	12	0.0500	○	○	●
		학습적응성	13	0.0425	○	●	○
생활관리역량	1	건강관리	2	0.0937	●	○	○
		과제관리	7	0.0718	○	○	●
		상황대처	6	0.0734	○	○	●
		정서조절	3	0.0865	○	●	○
진로개발역량	4	진로설계	8	0.0718	○	○	●
		여기활용	11	0.0536	○	●	○
		개척정신	15	0.0294	○	●	○
대인관계역량	2	관계형성	1	0.0988	○	●	○
		리더십	14	0.0397	○	○	●
		협동	4	0.0778	●	○	○
사회참여역량	5	개인 시민성	9	0.0579	○	○	●
		공동체 시민성	10	0.0575	○	○	●
		세계 시민성	16	0.0198	○	○	●

1)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하위역량간 가중치(세로)

2) 청소년 시기별 역량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4.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지수의 개념 및 측정문항 개발

1)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

생애학습역량이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같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OECD의 DeCeCo 프로젝트,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미국의 SCANS(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역량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에서는 DeC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세 가지 핵심범주를 기반으로 지적도구활용와 사고력역량을 제안하였다(김기현 외, 2010). 지적도구활용은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로 구분하였고 사고력은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EFF(Equipped for the future) 프로젝트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부모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 16가지를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대인관계기술, 평생학습기술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Merrifield, 2000). 생애학습역량과 관련있는 의사소통기술에는 이해하면서 읽기, 생각을 글로 옮기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비판적으로 주시하기의 하위역량을 제안하였고 평생학습기술에는 학습에 대한 책임감 가지기, 반영과 평가, 조사를 통한 학습,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사용하기의 하위역량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SCANS에서는 제안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 8개의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기본능력으로 기초능력(읽기능력, 쓰기능력, 수리능력, 듣기능력, 말하기능력), 사고력(창의력,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능력, 심미적 사물 관찰능력, 학습능력, 합리적 사고력)을 제시하였고 직무현장역량과 관련하여 정보처리능력(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능력, 자료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능력, 정보를 해석하고 의사교환하는 능력,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시스템능력(사회적, 조직적, 기술적 체제를 이해, 관리, 개선할 수 있는 능력), 기술활용능력(기술의 선택, 직무적용, 장비의 유지 및 보수)을 보고하였다(이종범 외, 2008).

뉴질랜드는 2005년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혁시, 역량을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능력으로 5가지

를 제안하였는데 그중 사고하기와 언어, 상징, 텍스트를 사용하는 능력을 설정하였다. 사고하기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메타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정보, 경험, 생각들을 조직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언어, 상징, 텍스트를 사용하는 능력은 표현된 지식의 의미를 만들고 해석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NZCER, 2006).

상기의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역량개발연구에서는 읽기, 쓰기, 수리 등의 세 가지 기초학습능력을 핵심역량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과 훈련 체계의 구체적 미래 목표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문해력과 수리력은 교육의 필수조건이며 학습능력과 고용가능성의 핵심임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생애학습역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	생애학습역량 관련 역량
DeSeCo (OECD)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EFF (USA)	의사소통능력, 평생학습능력
SCANS (USA)	기초능력, 사고력, 정보처리능력, 시스템능력, 기술활용능력
NZCER (New Zealand)	사고하기, 언어, 상징, 텍스트를 사용하는 능력
김기현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 구원	지적도구활용, 사고력
NBE ¹⁾ (Finland)	의사소통기술, 평생학습능력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적도구를 활용하는 능력과 사고력이 핵심역량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급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민감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능력 외 정의적인 측면의 태도관련 역량에 해당하는 학습민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으로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민첩성이 제안되었다.

① 사고력 (Thinking)

사고력이란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비판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진미석 외, 2007; 김기현 외, 2008). 김기현 외 (2010)의 연구에서는 사고력의 하위역량으로 비판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성향(체계성 포함)을 제안하였고 뉴질랜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혁에서 제안한 사고력에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적 사고력으로 구성하였고 미국의 SCANS에서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합리적 사고력, 심미적 사물관찰능력, 시스템능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통합적

1) National Board of Education (1999)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하였다. 다만,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추구를 위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배려에 기반한 의사결정능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감성적 사고력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 ㉠ 통합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오현석 외, 2013).
- ㉡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Beyer, 1985; Facione, 1990).
-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 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만든 손지갑이 공장에서 만든 손지갑과 유사한 질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② 지적도구활용능력(Intellectual Tools)

지적도구활용능력이란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02). 지적도구활용능력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역량으로 읽기, 쓰기, 수리력, 정보통신활용능력으로 구성되어 제안하였다. 정보통신활용능력과 관련해서 정보활용능력과 기술활용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특성 상 대부분의 정보는 컴퓨터 관련 기기를 활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기에 두 가지 능력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기현, 2009).

㉡ 수리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종범 외, 2008; 최동선 외, 2008).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기현, 2009).

③ 학습적응성(Learning adaptability)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태도관련 역량으로 학습민첩성이 기본으로 요구된다. 학습적응성(Learning adaptability)이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오현석, 성은모, 2013)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변화하는 현대사회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태도

라 할 수 있다. 그 하위 능력으로는 변화수용능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학습주도성은 미국의 EFF 프로젝트, 한국청소년의 핵심역량에서 자율적 행동의 하위역량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 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생애학습역량지수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생애학습역량의 구조 및 지표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사고력(Thinking)	통합적 사고력	나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DeSeCo, 2005; 김기현 외, 2009).
	비판적 사고력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김기현 외, 2009).
	감성적 사고력	나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 이득보다는 가치있는 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거나 소비한다.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나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DeSeCo, 2005).
	수리과학능력	나는 수학 및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DeSeCo, 2005).
	정보통신활용능력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OECD, 2000).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	변화수용력	나는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오현석, 성은모, 2012).
	지적 호기심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학습주도성	나는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계획, 실행, 성찰한다(이석재 외, 2003).

2)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

생활관리역량이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른 역량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애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으나 일본에서 개발한 아동역량, 청소년의 생활역량,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에서 관련 유사 역량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아동역량의 5가지 역량 중 신체역량과 생활역량이 관련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체역량에서는 운동능력과 신체적능력, 생활역량에서는 자기관리(시간관리, 자율성, 책임 인내심, 경제감각) 등을 제안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장기에 있어 신체적 발달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다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생활역량도 6개의 역량군에 22개의 생활기술을 제안하였다. 생활관리역량과 관련있는 역량으로는 자기조절역량과 상황대처역량이다. 자기조절역량의 하위 생활기술로는 감정조절기술, 신체관리기술, 시간활용기술, 합리적소비기술을 제안하였고 상황대처역량으로는 휴대폰중독대처기술, 인터넷중독대처기술, 유해물질대처기술, 폭력대처기술을 제안하였다(윤명희, 김진화, 2007). 자기조절역량과 상황대처역량은 현재의 청소년들의 생활특성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역량들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도 포함시켰다.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연구에서도 하나의 세부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을 제안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인적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기조절력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과 과제를 관리하고 위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으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능력을 제안하였다.

① 건강관리 (Health Management)

건강관리란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본의 아동역량의 신체역량과 청소년 생활역량의 하위 생활기술 중 신체관리기술을 참조하여 해당 역량을 개발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9세 ~ 24세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 및 인지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보니 가장 신체발달과 건강에 신경써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체발달 및 운동능력 개발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학교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일생동안의 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화를 형성하는 성장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 음주와 약물복용, 보호되지 않는 성행위, 신체활동의 부족과 부적절한 식습관 등은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서 이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김혜련, 2010).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신체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관리역량을 제안하였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제 2차 성징기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상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 발달과 함께 신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또한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과잉영양섭취로 인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의 식습관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역량의 하위역량으로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지식, 신체운동능력, 식습관 관리 능력을 제안하였다.

- ㉠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지식: 건강 및 생리적 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신체적 발달 및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 신체운동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윤명희, 김진화, 2007).
- ㉢ 식습관 관리 능력: 식욕을 조절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② 과제관리(Task Management)

과제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 스스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목표와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알맞게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이나표, 2007). 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자신을 조정하고 활동관리와 생활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인간의 인지적인 자기관리 전략의 일종이다(이원희,

2000). 과제관리는 실제로 자기주도적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과제에 내적흥미를 보이는 학습자는 눈에 띄는 보상이 없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학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능하고 총명한 자기주도 학습자들은 구체적이고 중심적인 목표와 지엽적인 목표를 위계적으로 연결하고 그 실행을 평가한다(Bandura, 1993). 과제관리 하위 역량으로는 관리하는 과제에 따라 구분하기 보다는 목표설정, 계획 수립 및 실행, 자기점검 및 평가와 같이 과제관리를 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 목표설정: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 계획 수립 및 실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 자기점검 및 평가: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③ 상황대처 (Situation handle)

상황대처란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기술, 유해물질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술, 폭력 등에 대처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윤명희, 김진화, 2007). DeSeCo 프로젝트에서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 패턴 및 체계를 이해하고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여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행동인지역량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상황대처역량은 매체(휴대폰, 인터넷, 컴퓨터) 중독이나 유해물질(흡연, 음주, 약물, 대마초, 마약 등) 중독의 문제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새로운 행동을 취사선택하여 대처하는 자율적 행동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폭력이나 유해물질(마약, 음주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은 IEA의 ICCS 2009에서도 포함되어 국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ㄱ) 매체중독(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컴퓨터 중독 등) 대처능력이란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매체중독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윤명희, 김진화, 2007). 특히, 이와 같은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병리적 생활습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기술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매체를 취사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ㄴ) 유해물질(흡연, 음주, 약물, 대마초, 마약 등) 대처능력은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약물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의 유혹에 대처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윤명희, 김진화, 2007).

- (ㄷ) 유해행위(가정폭력, 학교폭력, 일반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대처능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윤명희, 김진화, 2007).

④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정서조절은 자기조절의 하위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과 외부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로(윤명희, 김진화, 2007),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이다.

- (ㄱ) 자아정체성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적 존재로서 청소년기에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안경일, 김재현, 2002). 이와 같은 자아정체성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자아정체성은 복잡한 자아인식으로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여 자기 일관성 혹은 전체감, 자기통합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능력을 말한다(박아청, 1996).
- (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 또는 특수한 환경적 맥락 내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자신감을 느끼는 능력을 말한다(신수경, 민윤기, 2011).
- (ㄷ) 자아탄력성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키고, 내·외적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으로(Block & Block, 1980),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말한다(Block & Kremen, 1996; 김승경, 양계민, 2012에서 재인용).
- (ㄹ) 감정조절 및 통제는 개인의 성향과 외부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로(윤명희, 김진화, 2007), 자신의 감정(희노애락)을 사회적 맥락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한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생활관리역량의 구조 및 지표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건강관리(Health)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	나는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자체 개발).
	신체운동능력	나는 공부, 스포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충분한 운동능력을 갖추고 있다/보유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김기현, 2010)
	식습관 관리 능력	나는 식욕을 조절하며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적당량 식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김기현, 2010)
과제관리(Task management)	목표설정	나는 개별 과제단위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자체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한다.(AQA, 2000) ²⁾
	자기점검 및 평가	나는 계획한 일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AQA (2000)
상황대처	매체중독 대처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등의 과도한 매체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을 알고 대처한다(자체개발).
	유해물질 대처	나는 흡연 및 약물 등의 유해성을 알고 그 유해에 대처한다(자체개발).
	유해행위 대처	나는 신체 및 정신적 폭력 등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한다(자체개발).
정서조절	자아정체성	나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독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박아청, 1996)
	자기효능감	나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신수경, 민윤기, 2011)
	자아탄력성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DeSeco, 2002) ³⁾
	감정조절 및 통제	나는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감정(희노애락)을 수용하고 표현한다(자체개발).

3)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진로개발은 한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 계획, 준비하는 활동이다(김봉환 외, 2006). 이러한 진로개발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 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지현, 2002; 류재윤, 이유경, 2012: p.101 재인용).

이러한 진로개발활동은 협의적 진로개발과 광의적 진로 개발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적

2) 김기현 외 (2009) p.81 --> AQA (2000) 참고문헌에 없음

3) 출처에서 DeSeco (2002)는 김기현 외(2009)에서 인용한 자료로, DeSeCo 원문과는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김기현 외(2009)에서 토대가 된 자료인 DeSeCo(2002)로 편의상 표기하였음.

진로개발활동은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진로 설계(Career Design)활동을 의미하며 광의적 진로 개발활동으로는 여가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인생에 몰입하고 정형화되고 의도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는 여가활용(Leisure Use)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진로는 개발하는 동시에 개척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며 위험을 기회로 인지하는 적극적 삶의 자세인 개척정신(Pioneer spirit) 역시 광의적 진로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실질적 진로 설계활동을 도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에서 시행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조사에서는 진로 개발역량을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토대로 하위영역을 진로선택을 시 고려되는 개인적 특성(자신의 능력, 흥미 등)인 자기이해,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진로·직업지식,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청소년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류재운과 이유경(2012)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은 다양한 진로개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의사결정기술이 포함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광의적인 진로개발역량 대한 연구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제한된 방법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해 교실 내 활동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고하면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지원체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최인재 외, 2009). 이는 국가 정책으로도 나타나는데 2013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양한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진로교육이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및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역량이 진로를 통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 및 하위영역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개발역량을 청소년시기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Super, 1957; 김봉환 외, 2010)이라고 정의하며 진로개발역량의 하위개념으로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으로 구분하였다.

① 진로설계

진로설계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목적, 행동, 방법 등을 정하는 준비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설계를 개인이 진로를 탐색·인식하는 단계에서 얻는 진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정환, 1994).

흔히 진로 설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개념으로의 진로 성숙도 또는 진로 준비도 라는 용어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Super(1955)는 진로 발달이론을 근거로 단계별 진로 성숙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진로발달은 개인의 연령단계에서 이뤄야하는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정도로 보았다.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현재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ribons & Lohnes(1964)도 진로성숙을 진로 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진로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외적 여건에 의해 개인차가 존재하며 직업정보, 흥미, 가치 등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설계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요인으로 보고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봉환, 2010). 따라서 진로설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자기탐색,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결정을 설정한다.

- ㉠ 자기탐색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Crites, 1978; 김봉환 외, 2006). 특히 Crites(1978)은 그의 진로성숙도 검사 지표(Career Maturity Inventory: CMI)에서 자기이해(Self-Appraisal)의 개념으로 측정하였으며 김봉환 외(2006)은 진로 발달의 개념에서 이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탐색과 자신이 둘러싸인 환경 즉, 가정환경, 주변의 친구관계 등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기탐색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에서부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적·외적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 ㉡ 진로 및 직업탐색이란 진로·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Crites, 1978; Sundre, 1998; Super & Overstreet, 1960; 김봉환 외, 2006). 이는 진로성숙을 측정하는 CMI 및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 Sundre, 1998), CVMT(Cognitive Vocational Maturity Test, Super & Overstreet, 1960)에서 직업의 지식(knowing about jobs), 진로 정보 획득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대학의 관련 학과, 학원, 자격증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이며 최근 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 진로결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Crites, 1978; Super & Overstreet,

1960; 김봉환 외, 2006). 진로 결정 역시 CMI 와 CVMT에서 합리적 직업선택(goal selection)의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 탐색과 수집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로 과정을 살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여가활용

현재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여가의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시간 개념의 여가로 일 또는 일과 관련된 책임, 의무 등이 부여되지 않은 개인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둘째 활동 개념으로의 여가로서 자유로운 시간에 행하는 활동의 총체로 휴식의 개념을 지닌다. 그래서 여가를 “개인, 직장, 가정, 사회에서의 의무를 벗어나 휴식을 위해서 이익과 관계없이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하는 활동의 총체” 라 하였다. 셋째 의식 개념의 여가로 여가를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운 심리적 상태 또는 경험의 상태” 로 말한다(노용구, 박원임, 2000; 심희영, 2008, p.4 재인용).

아울러 여가의 기능으로는 프랑스의 여가 사회학자인 Dumazedier(1974)가 휴식, 기분 전환, 자기개발 등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휴식은 육체적·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분전환은 일상적인 경험외에 색다른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즐거움·행복감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자기개발(personal development)은 직무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학습이 아닌,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폭넓은 학습을 말한다.

여가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Munson과 Savickas(1998)는 미국 대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통제감을 느낄수록 직업적 목표와 흥미, 적성 등에 있어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여가활동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 진로 결정 능력, 직업에 대한 탐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Kelly와 Kelly(199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자기만족감을 얻게 되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가활동은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는데, 조한범 외(1999)는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한 여가 참여 유형이 진로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 진로성숙의 태도 영역인 진로의 선택·결정, 정보수집 그리고 능력 영역인 자기이해, 진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법래(2013)는 여가 시간이 길수록 좋

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 즉 다양한 사회·문화를 경험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가시간 자체 보다는 다방면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은,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들이 어떻게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청소년의 여가는 학교 일정, 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 이외의 시간이므로 청소년 본인의 자유의지대로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Witt & Ellis, 1987). 그리고 여가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여가필요성 인식, 여가 조절, 여가 몰입 등 세 가지로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 ㉠ 여가필요성 인식이란 여가경험을 통해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Witt & Ellis, 1987; 서동균, 2007). 이는 청소년들이 과제나 의무에서 벗어난 여가시간에 자기탐색, 피로 회복, 취미생활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평소에 본인이 필요로 했던 요구가 만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 ㉡ 여가 조절은 여가활동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그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Witt & Ellis, 1987; 서동균, 2007). 즉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여가시간을 조절하고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 여가몰입은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Csikszentmihalyi, 1975; 서동균, 2007). 이는 여가 활동을 하는 동안 청소년은 그 속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가활동에 온전히 몰입된 상태를 의미한다.

3) 개척정신

Miller(1983)는 개척정신을 일상생활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으로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혁신성은 지속적인 창의적 생각 및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 및 기술 향상을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하고, 진취성은 우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지위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감수성은 역량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건설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척정신은 진로개발의 적극적 자세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

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방황하게 되는데 개척정신을 통해 미래의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유연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태도야말로 진로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척정신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역동하는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지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기업가의 의지와 활동이라 할 수 있고(김주미 외, 2013), 이는 실제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진로 생애역량이므로 진로 개발 단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척정신을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경훈 외, 2012). 개척정신을 측정하는 요소로 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 ㉠ 차별화 태도란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태도를 말한다. 즉 주변에서 보던 사물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기준 또는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 ㉡ 도전정신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로 정의 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 했던 상황, 기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수행하고 경험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 ㉢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실패를 학습으로 인식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즉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지 할 수 있다는 기회·가능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실패경험에 머무르면서 자기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진로개발역량의 구조 및 지표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진로설계 (Career design)	자기탐색	나는 나의 직업적 소질 및 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친구들과 부모님도 동의하고 공감한다(Crites, 1978; 김봉환 외, 2006).
	진로 및 직업 탐색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잘 안다(Crites, 1978; Sundre, 1998; Super & Overstreet, 1960; 김봉환 외, 2006).
	진로결정	나는 미래 진로 목표가 세워져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극복하고 달성할 수 있다(Crites, 1978; Super & Overstreet, 1960; 김봉환 외, 2006).
여가활용 (Leisure use)	여가필요성 인식	나는 학교 등 일과시간에서 벗어난 여가 시간을 즐기며 이를 통해 재충전하며 내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Witt & Ellis, 1987; 서동균, 2007 응용).
	여가 조절	나는 여가시간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Witt & Ellis, 1987; 서동균, 2007 응용).
	여가 몰입	나는 여가시간을 보낼 때 다른 걱정을 잊고 여가 생활 자체에 몰입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느낀다(WCsikszentmihalyi, 1975; 서동균, 2007 응용).
개척정신 (Pioneer spirit)	차별화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도전정신	나는 새로운 일을 접할 때 흥미를 갖으며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수행한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위험감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좋은 학습 기회로 삼는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4)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대인관계역량은 행동에 초점을 두고(Leary, 1957),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양지희, 2004; 이형득, 1998; 최미라, 2007; Clarkson, 1992; Swensen, 1973)으로 보며,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Montemayor, 1994)하여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안범희, 2010; 전명순, 권일남, 2012). 다원론적 사회에서 다양성(diversity)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타인과 잘 지내기, 팀 내에서 협력하고 일하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역량으로 개념화된다(DeSeCo, 2002). 대인관계 역량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도 윤명희 등(2007)은 표현기술, 경청기술, 관계형성기술, 갈등조절 기술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김기현 외(2009) 등은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등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깊이있게 관계를 맺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권일남 등(2011)은 대인관계역량을 대인이해, 협동심, 관계형성능력, 행복추구, 독립심, 신뢰 및 가치 공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개인 수준에서 나아가 집단 내에서 사회적 협력의 필요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등에서 협력을 도출하는 역량은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EFF의 대인관계 기술에서도 협력, 지지와 영향, 갈등해결과 협상, 안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의 FEU 생애역량에서도 사회적 능력으로 집단 내 작업, 분석과 평가, 역할 확인, 집단의 범주를 하위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대인관계역량은 타인과 관계형성하는 개인 내적인 특성에서 비롯하여 타인과 협동하고 영향을 미치며 집단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많은 문헌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인간의 사회적 차원의 역량을 대인관계 역량으로 규정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으로 개념화하였다.

①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관계형성 역량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로(윤명희, 김진화, 2007),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말한다. 관계형성역량은 타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 공동생활에서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전명순, 권일남, 2002).

- (-) 자기개방성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으로(김기현 외, 2010),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자주 만나며 내면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자기개방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며, 대인관계의 시작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표하여 나를 알리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 (ㄴ) 친화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관계지향성과 관련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말한다(일본의 역량척도, 2000; 김기현 외, 2010).
- (ㄷ)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표현 전달하고 상대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진미석 외, 2007).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과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경청 기술이 핵심 능력이 된다(윤명희, 김진화, 2007). 특히, 윤명희 등(2007)은 관계형성기술과 갈등조정기술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개념화하고 있다. 주인중 등(2010)은 EFF스킬을 토대로 의사소통을 이해하며 읽기, 생각이 전달되도록 쓰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능동적으로 경청하기, 비판적으로 관찰하기 등을 핵심 스킬로 정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경청과 표현 기술이 핵심 능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비판적인 관찰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 (ㄹ) 공감 및 배려 능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Hollin, 1994; 박지연, 이은희, 2008에서 재인용),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을 말한다(Freshbach & Freshbach, 1982; 장정주, 2012에서 재인용). 이는 DeSeCo 핵심능력 가운데 이질적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서 공감(empathy)가 강조된 바 있으며, 타인과 함께 협력하여 갈등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과 관련된다. 공감 및 배려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추하며 타인을 신뢰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행동으로 발휘될 수 있다.

② 개인 리더십(Self-Leadership)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발휘하는 기술(윤명희, 김진화, 2007)이며, 궁극적으로는 타인과 잘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하며 집단 내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DeSeCo, 2002). 유현숙 등(2002)은 리더십을 조직의 비전 제시, 뚜렷한 주관과 추진력, 구성원간 갈등 조율, 책임감과 도덕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종범 등(2008)은 집단에 팀원으로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거나 리더십 및 협상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개인 리더십은 집단 내에서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 (ㄱ) 의사결정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술이며(윤명희, 김진화, 2007),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계획,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이러한 의사결정역량은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내리는 역량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 (ㄴ) 집단활동 관리는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0). 집단활동 관리능력은 리더십의 핵심 구성요인으로 개인적인 이해보다는 집단의 성과를 위해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ㄷ) 추진력은 개인이 집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을 말한다.

③ 협동(team work)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말한다. 진미석 등(2007)은 협동을 조직 내에서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으로 제안하였고, 김기현 등(2010)은 사회적 협력의 개념으로 시민의식, 소속감, 만족감을 그 구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유현숙 등(2002)은 타인과의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타인에 대한 지원과 신뢰관계를 가지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협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종범 외(2010)은 팀워크를 팀 구성원을 지원하고 긍정적으로 팀 구성을 하여 역할 수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단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집단 내 구성원들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ㄱ) 집단 촉진은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 (ㄴ) 팔로워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행자들의 효과적인 사고, 참여, 자질, 역할로 정의되며 팔로워의 사고성향이 독립적·비판적 성향인지, 의존적·무비판적인지에 따라, 행동성향이 수동적인가, 적극적인가를 기준으로 소외형, 순응형, 수동형, 모범형으로 구분하였다(Kelly, 1992). 팔로워는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Chaleff, 1995)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Kelley, 1992)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김희봉, 송영수, 2013). 청소년의 팔로워십은 모범형 팔로워로서 독립심이 강하고 혁신적이며 독창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모범적 팔로워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 (c) 갈등 문제 해결은 자신과 타인의 갈등을 조절하고 제3자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로(윤명희, 김진화, 2007),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다(EFF standards).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대인관계역량지수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대인관계역량의 구조 및 지표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DeSeco, 2002).
	친화성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DeSeco, 2002)
	의사소통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ICCS, 2010)
	공감 및 배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을 수용한다(자체개발).
리더십	의사결정	나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적절한 결론을 표현한다(DeSeco, 2002)
	집단활동 관리	나는 집단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0)
	추진력	나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여 실행한다(자체개발).
협동	집단 촉진	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여 스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자체개발).
	팔로워십	나는 집단의 비전을 공유하며, 리더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Chaleff, 1995).
	갈등문제 해결	나는 집단협동관련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DeSeco, 2002)

5)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역량을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Pittman & Irby, 1996).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IEA에서 1999년에 실시한 시민교육 수준 조사(CivEd: Civic Education Study)는 세계 각국의 8-9학년(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그 이해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연구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장근영 외, 2011). 이 연구가 주는 의미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제시한데 있다. 이 연구에는 28개국이 참여하였고 연구 결과로 참가국간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기본 원칙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시민교육의 주제영역으로 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지역 및 국제관계, 사회통합과 다양성 이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을 도출했다. 각 영역별 내용은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인식, 국가 정체성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유대와 다양성 포용에 대한 인식이다(Baldi et al, 2001).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은 최근 IEA의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연구(ICCI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로 이어졌는데 ICCS 조사(2009a; 2009b)는 시민교육수준 조사의 내용영역을 확대하여 인지영역 및 태도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한 것이다. ICCS 시민성 평가 틀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내용영역은 민주시민으로서 알고 있고 내면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다. 나머지 두 영역은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된다. 인지영역은 지식과 추론·분석을, 정의행동영역은 가치 신념, 태도, 미래 행동의도, 실제 행동을 측정하며 측정 영역은 시민 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등이다(표 III-7 참조).

〈표 III-7〉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적 구조

		내용영역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영역	지식	- 시민의 역할 - 시민의 권리	- 평등 - 자유	- 의사결정 - 영향력 행사	- 시민의 자아상
	추론과 분석	- 시민의 책임 - 시민의 기회와 능력	- 사회 통합	- 공동체 참여	- 시민 유대감
정의·행동 영역		가치/신념	태도	미래 행동 의도	실제 행동
		- 민주주의의 가치/신념 - 시민적 가치/신념	- 자신, 타인, 기관, 정책에 대한 태도	- 투표참여의사 - 의견표현의사 - 정치적향의	- 학생활동참여 -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 교내 시민활동 참여

참고 : 장근영, 박수억, 장지영(2011, p.63)

이러한 국제 연구를 토대로 생애 역량의 하나로 시민의식을 다룬 유현숙 외(2004)는 시민의식을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태도 요인을 의미하며 도덕성, 질서의식, 책임감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란 개개인의 인적 자본을 네트워크화 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능력” (p.41)이라고 정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임감, 도덕성 및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권일남과 김태균(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활동역량 중 시민성역량을 신뢰 및 가치공유 능력, 권리·책임능력, 참여의식능력, 지역사회기여(봉사)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주요 역량 중 하나로 선정하여 개인 시민 의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체 시민 의식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후기청소년인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제안한 진미석 외(2007)는 사회참여 역량의 개념으로 글로벌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지역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감각과 자세 및 이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바라는 기업의 인재상 연구에서(강수정, 고윤광, 2008) 15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도출하였는데 글로벌화에 맞는 인재는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외국어 능력의 소유자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역량 연구에서 하위영역으로서 시민의식 또는 시민성, 공동체 역량, 글로벌 역량의 이름으로 사회참여역량이 강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논의를 종합하여 시민 참여 역량을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으로 분류하였다.

① 개인 시민성

이 연구에서는 개인 시민성을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및 신념을 갖추기 위한 개인 역량으로 정의한다(유현숙 외, 2004). 김기현 외(2009)의 역량연구에서도 DeSeCo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의 하위요소로 시민 의식을 들었으며 개인의 정치적 참여, 권리와 책임,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을 측정 문항으로 하여 개인 시민성을 측정하였다. 이 밖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이광우 외, 2008)에서도 학생들이 가져야 할 10개 역량 중 시민의식을 하나로 꼽았으며, 시민의식으로서 도덕성, 책임의식, 질서의식을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해외에서도 IEA의 시민성 및 시민의식 교육연구(Kerr et al., 2010)에서, 개인 시민성을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원리에서는 평등, 자유, 사회 통합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개인 시민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에 개인 시민성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권리와 책임감이라 할 수 있고 도덕적 태도 역시 시민성을 이루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시민성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권리의식, 책임감, 도덕성으로 구분하였다.

㉠ 권리의식으로는 김기현 외(2009)연구 토대로 권리를 사회의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장근영 외(2011)연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의 총합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의식을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주장하는 능력(DeSeCo, 2002, 김기현 외, 2009)이라고 정의한다. 즉 기본적인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책임감은 박동열 외(2008) 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업무에서 개인에게 제한되는 책임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을 사회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는 능력이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장근영 외, 2011). 즉,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인지하고 지키려하는 노력인 동시에 규범, 질서를 위반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덕성은 유현숙 외(2004)연구를 토대로 부정부패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는 양심적인 태도와 사회적으로 나누고 도와주는 것을 도덕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를 정의로움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영한,

이승하, 2012). 이는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서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시민성

본 연구에서 공동체 참여 역량을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갖춰야 할 역량(권일남, 김태균, 2011; 유현숙 외 2004)으로 정의하였다.

공동체 시민성은 개인시민성과 구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민주시민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권일남, 김태균, 2011), 소속감이 바탕이 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치참여는 공동체 시민성을 대표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가 강조한 청소년 발달단계별 역량을 보면 참여와 공헌(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을 통한 사회집단 참여는 중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 참여 역량이며, 이는 후기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강조하였다(김기현 외, 2009).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위해서 실제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 의사를 밝히거나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통한 정치적 항의, 화합,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통합과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다. 건전한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 시민성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시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다양성 존중, 정치참여, 사회봉사로 구분하였다.

① 다양성 존중은 ICCS(2009a)연구 등을 토대로 여러 공동체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점들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한 개인 지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Kerr et al., 2010). 본 연구에서서도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집단 간 또는 개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흥미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Pittman & Irby, 1996).

② 정치참여는 권일남·김태균(2011) 연구를 토대로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인 투표를 하는 등의 정치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권일남 외, 2011; 유현숙 외 2004),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김기현 외, 2009; ICCS, 2009b)로 정의하였다.

- ㉔ 사회봉사는 권일남·김태균(2011)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 또는 물질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봉사를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윤명희, 김진화, 2007; 김기현 외, 2009; ICCS, 2009a).

③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성이란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세계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세계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상철(2009)의 경우 세계시민성을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이라 정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예의와 질서인식을 익히고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외국어 능력을 주요 하위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광우 외(2008)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세계시민역량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자국에 대한 정체성은 국제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발점이 되며 주체적이고 자발적 역할을 통해 국제 사회에 참여하는 근간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성을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자국을 사랑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글로벌 의사소통, 국제사회의 공헌, 국가 정체성을 선정하였다.

- ㉕ 글로벌의사소통은 외국어 또는 현지어를 사용하여 일상과 업무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능력(한상철, 2009; 이광우 외, 2008)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외국사람과의 의사소통능력은 글로벌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ICCS, 2009a)
- ㉖ 국제사회의 공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의 이익 및 인류번영을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김경훈 외, 2012)으로 정의하였다. 즉 현대의 글로벌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현 국제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ICCS, 2009a).
- ㉗ 국가 정체성은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를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ICCS, 2009a; Spencer & Spencer, 1993)로 정의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을 이해를 통해 현

사회제도에 대해 수긍하며 사회에서 제시하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기술 한 사회참여역량지수의 각 영역 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사회참여역량의 구조 및 지표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개인 시민성 (Personal citizenship)	권리 의식	나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이해하며 권리의 실천을 위해 참여하고 행동한다(김기현 외, 2009).
	책임감	나는 사회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김기현 외, 2009).
	도덕성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정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김영한 & 이승하, 2012).
공동체 시민성 (Community citizenship)	다양성 존중	나는 사람의 직업, 인종, 종교, 소득 등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ICCS, 2009a).
	정치참여	나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면 적극 참여한다(ICCS, 2009b)
	사회 봉사	나는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주 참여한다(ICCS, 2009a; 김기현외, 2010).
세계 시민성 (Global citizenship)	국가 정체성(역사의식 등)	나는 내 자신을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며 우리 역사와 정치, 경제에 대해 늘 나의 일처럼 생각한다(ICCS, 2009a).
	국제사회 공헌	나는 우리나라의 이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모색하고 실천한다(ICCS, 2009a).
	글로벌 의사소통	나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외국어를 열심히 배운다(ICCS, 2009a).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와 이에 따른 측정문항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에 따른 측정문항(안)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생애 학습역량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나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비판적 사고력	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지적도구 활용	감성적 사고력	나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 이득보다는 가치있는 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거나 소비한다.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나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수리과학능력	나는 수학 및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민첩성	정보통신활용능력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변화수용력	나는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지적 호기심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학습주도성	나는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계획, 실행, 성찰한다.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한 기본 지식	나는 건강 및 생리기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신체운동능력	나는 공부, 스포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충분한 운동능력을 갖추고 있다/보유하고 있다.
		식습관 관리 능력	나는 식욕을 조절하며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적당량 식사한다.
	과제관리	목표설정	나는 개별 과제단위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한다.
		자기점검 및 평가	나는 계획한 일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
	상황대처	매체중독 대처	나는 컴퓨터(또는 인터넷) 등의 과도한 매체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을 알고 대처한다.
		유해물질 대처	나는 흡연 및 약물 등의 유해성을 알고 그 유혹에 대처한다.
		유해행위 대처	나는 신체 및 정신적 폭력 등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자아정체성	나는 내 자신의 능력이나 독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
		자기효능감	나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아탄력성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
		감정조절 및 통제	나는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감정(희노애락)을 수용하고 표현한다.
		자기탐색	나는 나의 직업적 소질 및 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친구들과 부모님과 동의하고 공감한다.
		진로 및 직업 탐색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잘 안다.
		진로결정	나는 미래 진로 목표가 세워져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극복하고 달성할 수 있다.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지표	측정문항
대인관계역량	여가활동	여가필요성 인식	나는 학교 등 일과시간에서 벗어난 여가 시간을 즐기며 이를 통해 재충전하며 내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여가 조절	나는 여가시간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여가 몰입	나는 여가시간을 보낼 때 다른 걱정을 잊고 여가 생활 자체에 몰입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전정신	나는 새로운 일을 접할 때 흥미를 갖으며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수행한다.
		위험감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좋은 학습 기회로 삼는다.
		자기개방성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관계형성	친화성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공감 및 배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행동을 수용한다.
협동	리더십	의사결정	나는 집단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적절한 결론을 표현한다.
		집단활동 관리	나는 집단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진력	나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여 실행한다.
	협동	집단 촉진	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여 스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필로위십	나는 집단의 비전을 공유하며, 리더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갈등문제 해결	나는 집단협동관련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권리 의식	나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이해하며 권리의 실천을 위해 참여하고 행동한다.
		책임감	나는 사회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
		도덕성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정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다양성 존중	나는 사람의 직업, 인종, 종교, 소득 등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공동체 시민성	정치참여	나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면 적극 참여한다.
		사회 봉사	나는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주 참여한다.
		국가 정체성(역사 의식 등)	나는 내 자신을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며 우리 역사와 정치, 경제에 대해 늘 나의 일처럼 생각한다.
		국제사회 공헌	나는 우리나라의 이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글로벌 의사소통	나는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외국어를 열심히 배운다.

5.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 예비 타당화 검사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의 타당화 검증을 예비 타당화 검사와 본 타당화 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실제 청소년의 응답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지수를 보다 체계화 하고 청소년의 상황맥락에 부합하는 측정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역량지수 예비 타당화 검증에 참여한 청소년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156명(남 90명, 여 66명), 고등학생 177명(남 99명, 여 78명) 등 총 333명의 청소년을 임의 선택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타당화에 참여한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20세(표준편차=1.58)였으며, 중학생 156명 중 1학년 78명(남 36명, 여42명), 2학년 39명(남자), 3학년 39명(남 15명, 여24명)이었고, 고등학생 177명 중 1학년 76명(남 37명, 여39명), 2학년 101명(남 62명, 여 39명)이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의 예비 타당화 검증은 청소년이 응답에 대한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소년이 응답한 문항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에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hach' s α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분석으로 변별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역량요인과 역량요인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역량요인의 기술통계(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역량요인의 구조는 최종 도출된 역량요인에 대한 확증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을 실시하여 구성체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사결과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문항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문항분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정규분포 가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측정문항간 내적일치도 Cronhach' s α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은 왜도와 첨도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의 기준(Curran, West, & Finch, 1996)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뢰도 계수는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측정문항간 신뢰도가 있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문항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문항분석결과

측정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계수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a01	3.28	0.77	0.04	0.78	.964
		비판적 사고력	a02	3.50	0.75	-0.04	-0.10	.963
		감성적 사고력	a03	3.34	0.77	0.00	0.39	.964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a04	3.36	0.83	0.05	-0.11	.964
		수리과학능력	a05	3.29	0.88	-0.04	-0.02	.964
		정보통신활용능력	a06	3.51	0.97	-0.15	-0.64	.964
	학습민첩성	변화수용력	a07	3.45	0.79	-0.13	0.11	.964
		지적 호기심	a08	3.66	0.90	-0.25	-0.36	.964
		학습주도성	a09	3.31	0.86	0.08	0.02	.963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건강 및 생리기능 지식	a10	3.52	0.86	-0.05	-0.20	.963
		신체운동능력	a11	3.44	0.97	-0.29	-0.14	.965
		식습관 관리 능력	a12	3.39	1.00	-0.25	-0.32	.964
	과제관리	목표설정	a13	3.39	0.86	-0.16	0.17	.964
		계획 수립 및 실행	a14	3.25	0.87	0.10	0.00	.964
		자기점검 및 평가	a15	3.22	0.87	0.10	-0.18	.964
	상황대처	매체중독 대처	a16	3.54	0.89	-0.14	0.02	.963
		유해물질 대처	a17	4.08	0.96	-0.71	-0.21	.964
		유해행위 대처	a18	3.86	0.85	-0.23	-0.53	.963
	정서조절	자아정체성	a19	3.66	0.78	-0.05	-0.24	.963
		자기효능감	a20	3.62	0.80	-0.30	0.20	.963
		자아탄력성	a21	3.61	0.84	-0.26	0.13	.963
		감정조절 및 통제	a22	3.55	0.83	-0.29	0.29	.963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a23	3.48	0.90	-0.05	-0.32	.964
		진로 및 직업 탐색	a24	3.39	0.90	-0.07	-0.08	.964
		진로결정	a25	3.41	0.92	-0.06	-0.13	.964
	여가활용	여가필요성 인식	a26	3.62	0.89	-0.38	0.12	.964
		여가 조절	a27	3.33	0.85	-0.02	-0.30	.964
		여가 몰입	a28	3.67	0.90	-0.33	-0.04	.964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a29	3.57	0.86	0.12	-0.70	.964
		도전정신	a30	3.61	0.83	-0.18	0.13	.964
		위험감수	a31	3.37	0.88	-0.04	-0.05	.963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a32	3.65	0.96	-0.36	-0.26	.964
		친화성	a33	3.59	0.81	0.04	-0.34	.964
		의사소통	a34	3.65	0.78	-0.16	0.28	.963
	리더십	공감 및 배려	a35	3.70	0.76	-0.10	-0.14	.963
		의사결정	a36	3.47	0.77	0.06	0.07	.963
		집단활동 관리	a37	3.57	0.76	0.12	-0.20	.963
		추진력	a38	3.46	0.75	0.25	0.18	.963
	협동	집단 촉진	a39	3.53	0.81	-0.02	-0.13	.963
		팔로워십	a40	3.45	0.82	-0.11	0.28	.963
		갈등문제 해결	a41	3.55	0.81	-0.08	0.06	.963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의식	a42	3.53	0.75	0.24	-0.36	.964
		책임감	a43	3.58	0.80	0.07	-0.30	.963
		도덕성	a44	3.58	0.82	-0.17	0.04	.963
	공동체 시민성	다양성 존중	a45	3.73	0.82	-0.09	-0.44	.964
		정치참여	a46	3.30	0.95	0.07	-0.57	.964
		사회봉사	a47	3.35	0.91	-0.13	0.01	.964
	세계 시민성	국가 정체성	a48	3.30	0.85	0.11	-0.09	.964
		국제사회 공헌	a49	3.20	0.92	0.06	-0.15	.964
글로벌 의사소통	a50	3.28	0.96	-0.31	-0.01	.964		
전체				3.50	0.85			.964

〈표 III-10〉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체 평균은 3.50(표준편차=0.85)로 나타났으며, 최고평균이 평균 4.08(표준편차=0.96)이었고, 최저 평균은 3.20(표준편차=0.92)로 나타났다. 왜도 값은 -0.71~0.25의 범위에 있었으며, 첨도 값은 -0.70~0.78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이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문항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0.964$ 로 나타났으며, 이는 0.7이상이면 보편적으로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0.964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문항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50개의 모든 측정문항이 1차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2)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 및 구성체계 검증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1차 문항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 및 구성체계에 대한 타당화 검증을 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에 타당화 검증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5개 역량군에 속해하는 16개의 하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각 하위역량요인의 설명력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의 구성체계에 대한 모형적합지수와 더불어 각 역량군의 구성체계에 대한 모형적합도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에 대한 타당화 검증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III-11>에 제시되었다.

<표 III-11> 청소년 역량요인 기술통계 분석(N=333)

역량군	하위역량	평균	표준편차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3.37	0.60
	지적도구활용	3.38	0.67
	학습민첩성	3.48	0.66
	소계	3.41	0.64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3.44	0.71
	과제관리	3.29	0.74
	상황대처	3.82	0.75
	정서조절	3.43	0.78
	소계	3.50	0.75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3.61	0.65
	여가활용	3.54	0.69
	개척정신	3.52	0.67
	소계	3.56	0.67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3.65	0.66
	리더십	3.50	0.64
	협동	3.51	0.68
	소계	3.55	0.66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3.56	0.65
	공동체 시민성	3.46	0.66
	세계 시민성	3.26	0.72
	소계	3.43	0.68
전체		3.50	0.68

〈표 III-11〉에 의하면, 청소년의 역량지수 전체 평균은 3.50(표준편차=0.68)이었으며, 진로개발역량 평균이 3.56(표준편차=0.67)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역량 평균 3.66(표준편차=0.66), 생활관리역량 평균 3.50(표준편차=0.75), 사회참여역량 평균 3.43(표준편차=0.68), 그리고 생애학습역량 평균 3.41(표준편차=0.64)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별로는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상황대처역량 평균이 3.82(표준편차=0.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인 세계시민성 역량 평균이 3.26(표준편차=0.72)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역량에 있어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활관리역량은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학습역량과 사회참여역량은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청소년들의 인식수준으로 기반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역량 측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지수 하위역량들의 전체 상관계수 $r=346\sim773$ 에 있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생애학습역량 간 하위요인의 상관계수 $r=512\sim619$, $p<.05$, 생활관리역량 하위요인의 상관계수 $r=373\sim6519$, $p<.05$, 진로개발역량 하위요인의 상관계수 $r=568\sim688$, $p<.05$, 대인관계역량 하위요인의 상관계수 $r=658\sim773$, $p<.05$,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하위요인의 상관계수 $r=614\sim667$,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보통이상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12〉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역량군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생애학습역량	1)사고력	-	.512**	.619**	.488**	.489**	.524**	.436**	.621**	.477**	.548**	.493**	.616**	.559**	.595**	.452**	.450**
	2)지적도구활용		-	.533**	.425**	.510**	.476**	.454**	.505**	.355**	.462**	.507**	.576**	.527**	.480**	.438**	.389**
	3)학습민첩성			-	.553**	.604**	.554**	.560**	.674**	.509**	.636**	.521**	.630**	.572**	.528**	.475**	.450**
	4)건강관리				-	.468**	.489**	.494**	.605**	.389**	.459**	.422**	.464**	.407**	.456**	.414**	.441**
생활관리역량	5)과제관리					-	.418**	.519**	.511**	.356**	.425**	.423**	.544**	.522**	.454**	.346**	.392**
	6)상황대처						-	.373**	.597**	.479**	.513**	.573**	.605**	.578**	.578**	.510**	.402**
	7)정서조절							-	.594**	.487**	.541**	.516**	.463**	.456**	.443**	.365**	.381**
	8)진로설계								-	.612**	.688**	.635**	.708**	.662**	.607**	.520**	.432**
진로개발역량	9)여기활용									-	.568**	.547**	.492**	.479**	.505**	.472**	.422**
	10)개척정신										-	.560**	.603**	.521**	.574**	.498**	.465**
	11)관계형성											-	.670**	.658**	.599**	.541**	.428**
	12)리더십												-	.773**	.630**	.550**	.479**
대인관계역량	13)협동													-	.659**	.577**	.487**
	14)개인 시민성														-	.651**	.614**
	15)공동체 시민성															-	.667**
	16)세계 시민성																-

** : $p < .01$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면,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지수 하위역량요인들의 표준화계수 $\beta = .647 \sim .886$ 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 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표준화계수 $\beta = .665 \sim .819$, $p < .05$,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표준화계수 $\beta = .647 \sim .859$, $p < .05$,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표준화계수 $\beta = .692 \sim .798$, $p < .05$,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표준화계수 $\beta = .774 \sim .886$, $p < .05$,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하위역량 표준화계수 $\beta = .743 \sim .850$,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요인들이 6이상의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각 하위역량 요인들의 영향력이 중간이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수 있다.

<표 III-1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N=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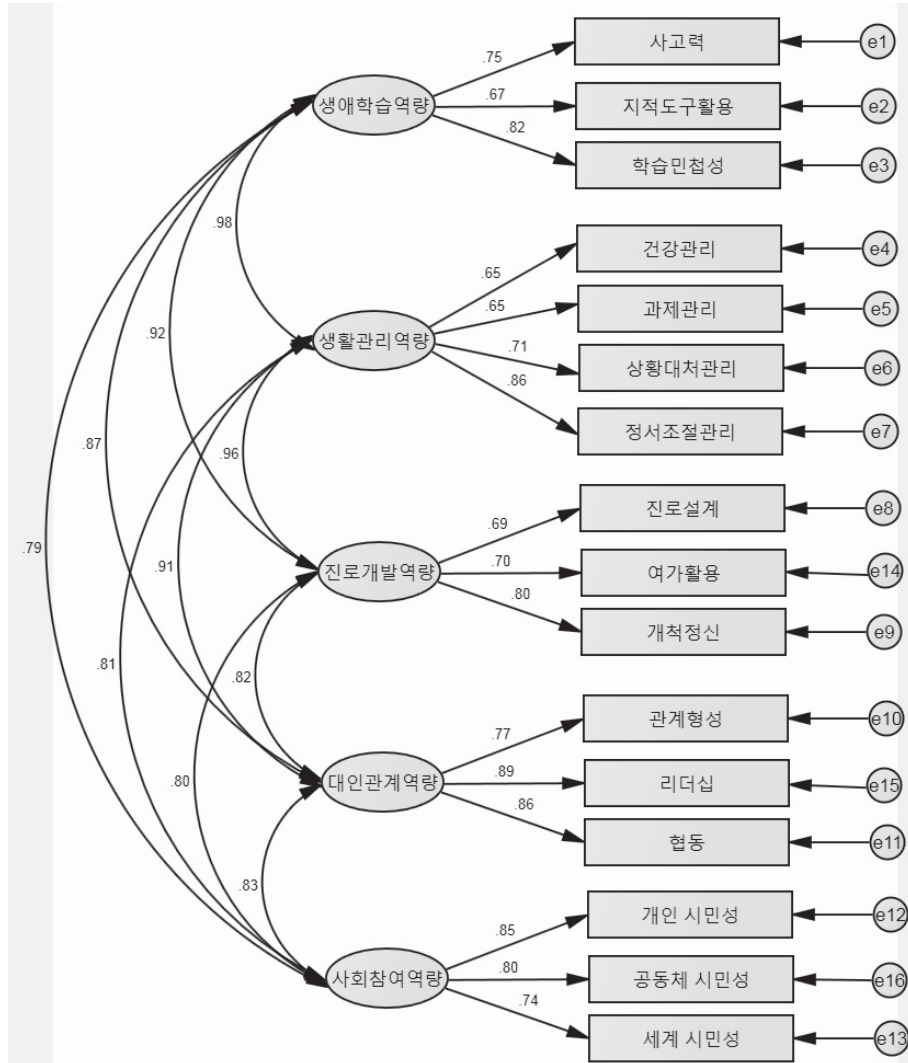
역량군	하위역량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1.000	.752**
	지적도구활용	.985	.665**
	학습민첩성	1.193	.819**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1.000	.647**
	과제관리	1.060	.651**
	상황대처	1.151	.706**
	정서조절	1.229	.859**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1.000	.692**
	여가활용	.898	.700**
	개척정신	1.000	.798**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1.000	.774**
	리더십	1.104	.886**
	협동	1.129	.858**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1.000	.850**
	공동체 시민성	.952	.798**
	세계 시민성	.973	.743**

** : $p < .01$

이상의 청소년 역량지수의 요인에 대한 타당화 검증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하위역량요인들간 상관관계와 각 하위역량의 영향력이 일정수준이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수의 요인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지수 요인들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 또한 타당한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구성요인들

간의 적합도 분석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은 [그림 III-1]에 제시하였다.



[그림 III-1]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그림 III-1]에 의하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간 상관관계 $r=.79\sim.98$,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역량군간 정적관계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분석한 결과는 <III-14>에 제시하였다.

〈표 III-14〉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역량군	χ^2 (CMIN)	CFI	NFI	TLI	RMSEA
전체 모형	266.119(df=94, $p<.05$)	0.949	0.924	0.926	0.07
생애학습역량	38.401(df=24, $p<.05$)	0.980	0.951	0.963	0.04
생활관리역량	162.162(df=59, $p<.05$)	0.939	0.910	0.907	0.07
진로개발역량	51.508(df=24, $p<.05$)	0.972	0.949	0.957	0.05
대인관계역량	103.946(df=32, $p<.05$)	0.956	0.939	0.925	0.08
사회참여역량	83.341(df=24, $p<.05$)	0.941	0.921	0.942	0.08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CMIN)과 모형을 설명하는 적합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형의 적합지수는 Hu와 Bentler(1998)가 제시한 CFI, NFI, TLI, RMSEA 등의 지수가 활용되었다.

우선,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체적인 구성체계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4〉에 의하면, $\chi^2(94, N=333)=266.119$, $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χ^2 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수가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χ^2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 제안모델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좋은 모델일 가능성도 있으며, 모델 검증의 조건들이 위배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χ^2 값에만 전적으로 적합도를 판단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배병렬, 2005; 2007). 이에 Hu와 Bentler(1998)가 제시한 여러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0.949(0.9 이상), NFI=.924(0.90이상), TLI=0.926(0.9 이상), RMSEA=0.07(0.08 이하)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체적인 구인체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의 하위역량들과의 구성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의 구성체계 적합지수 $\chi^2(24, N=333)=38.401$, $p<.05$, CFI=0.980, NFI=.951, TLI=0.963, RMSEA=0.04로 나타났으며, 생활관리역량의 구성체계 적합지수 $\chi^2(59, N=333)=162.162$, $p<.05$, CFI=0.939, NFI=.910, TLI=0.907, RMSEA=0.07이었고,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체계 적합지수 $\chi^2(24, N=333)=51.508$, $p<.05$, CFI=0.972, NFI=.949, TLI=0.957, RMSEA=0.0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의 구성체계 적합지수 $\chi^2(32, N=333)=103.946$, $p<.05$, CFI=0.956, NFI=.939, TLI=0.935, RMSEA=0.08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역량의 구성체계 적합지수 $\chi^2(24, N=333)=83.341$, $p<.05$, CFI=0.941, NFI=.921, TLI=0.942, RMSEA=0.08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에 있어 전체 구성체계뿐만 아니라 각 역량군의 구성체계의 적합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상 청소년 역량지수의 요인 및 구성체계에 대한 타당화 검증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요인은 내적일치도가 높고, 역량지수 요인뿐만 아니라 역량군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량군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요인 영향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전체모형과 각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타당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와 구성체계는 적합할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수정 · 고윤광(2008).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조사 결과, 전국경제연학회 FTP-2008-0013
- 권일남 · 김태균 (2011). 청소년의 핵심역량증진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시설환경, 9(2), 27-37.
- 권일남 · 김태균(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 청소년학회지, 6(3), 67-89.
- 김정훈(2012).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기반의 정보교육 정책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12-7.
- 김정훈 · 강오한 · 김영식 · 김윤영 · 서인순 · 안성진 · 정순영 · 최현중(2012).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기반의 정보 교육 정책 방향 탐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광웅 · 이종원 · 천정웅 · 이용교 · 길은배 · 전명기 · 정효진(2008).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연구보고 09-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김지연 · 장근영 · 소경희 · 김진화 · 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칭 추진 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장근영(2012).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수시과제 12-R20).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총괄보 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김봉환 · 이제경 · 유현실 · 황매향(2010). 진로상담이론. 학지사
-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영인(2010). 청소년 시민 역량 개념과 강화 방안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1(2), 29-60.
- 김영한 · 이승하(20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 (연구보고 12-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환 · 황혜자 · 설기문 · 박영태 · 최은영(1994). 대학생의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에 관한 연

- 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2, 39-104.
- 김주미 · 박재필(2013).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0(2), 237-249.
- 김충기 (1991). **진로발달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직성연구소
- 김태준·김남희·김주섭·정지선(2002).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설정 및 성인학습체 제 질 관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노법래(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 경제적 불안정과 여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 71-193.
- 노용구 · 박원임(2000). 여가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9, 91-103.
- 류재윤 · 이유경(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여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 박동열 · 최동선 · 이용순(2008). **전문계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개발(기본연구 2008-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송인섭 · 정미경 · 김효원 · 최영미(2011). 초등학교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0(3), 151-163.
- 勝俣暎史(2000). 「生きる力」の概念と構成成分, コンピタンス心理学の視点から, 熊
- 유현숙 · 김남희 · 김안나 · 김태준 · 이만희 · 장수명 · 송선영(2002).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 김태준 · 이석재 · 송선영(2004).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Ⅲ)(RR 2004-11)**.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 · 김진화(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윤명희 ·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윤철경 · 유성렬(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연구보고 08-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우 · 민용성 · 전제철 · 김미영 · 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비전연구(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희 · 윤철경 · 김안나(1999). **청소년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모형개발**.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범 외 (2008).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재, 송경호 (2007). 핵심역량 개발과 마음의 개발: 중용의 관점. **아시아교육연구**, 8(3), 137-159.
- 이지현(2002). 역량 중심의 대학생 진로개발전략 모색. **상담학연구**, 3(2), 419-438.
- 장근영 · 김기현(2010). **한국청소년의 핵심역량지표개발과 국제비교 : PISA, ICCS 조사결과와 메타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 박수익 · 장지영(201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1-R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한범 · 이경일 · 김미향(1999). 여가 활동 참여와 진로 성숙의 관계 :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8(4), 950-959.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기본연구 2010-13).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이수영·채창균·유한구·박천수·이상·최동선·옥준필(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채선희,나귀수,곽영순,김재철,윤준채,최성연(2003). **2003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천정웅(2009).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활동: 역량개발의 이론, 정책, 실천. **청소년행동연구**, 14, 31-49.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조지혜(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연구보고 09-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철(2009). 청소년의 글로벌역량개발을 위한 학교 밖 활동의 중요성과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6(3), 91-110.
- ACER (2010).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ICC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Baldi, S., Perie, M., Skidmore, D., Greenberg, E., Hahn, C., & Nelson, D., (2001). What Democracy Means to Ninth-Graders: U.S.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IEA Civic Education Study,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 Beyer, B. K. (1985).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Social Education*, April, 270-276.
- Canto-Sperber, M. & Mupuy, J. P. (2001). Competencies for the good life and the good society. In D. S. Rychen & L. 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pp. 228-231).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Dumazedier, J.(1974).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 The Free Press*.

- Eric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urydice European Unit (2002). *Key Competencies*.
- Facione, P. A. (1990). *The Delphi report. Critical thinking: A statement of expert consensus for purposes of educational assessment and instruction*. Millbrae, Calif: Californica Academia Press. ERIC Doc. No. 315 423.
- Gribone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3–20.
- Haworth, D. and Browne, G.(1992). *Key competencies* (2nd ed.). St. Leonards, Australia: New South Wales TAFE Commission.
- Kelly, J. R., & Kelly, J. R. (1994). Multiple dimensions of meaning in the domains of work, family,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50–274.
- Kerr, D., Sturman, L., Schulz, W., Burge, B. (2010) ICCS 2009 European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tudents in 24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Amsterdam, The Netherlands.
- Kohlberg, L.,(1987), "The Cognitive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P. F. Carbone Jr(ed), *Value Theory and Education*(Malabar, Florida: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
- McClelland, D.(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pp. 3–8). New York: John Wiley & Sons.
- Merrifield, J.(2000). *Equipped for the Future,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NIFL.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 770–791.
- Ministere de l'Education (2001). *Quebec Education Program: Preschool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for English-medium teaching and learning in year 1–13*.
- Munson, W. W., & Savickas, M. L. (1998).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2), 243–253.
- NZCER (2006). *Shifting the frame: Exploring integration of the key competencies at six Normal Schools*.
- OECD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OECD (2005).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 of the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 OECD(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Rousseau,J.J.(1979). *Emile, or On Education*. trans. by A. Bloom, N.Y:Basic Book
- Rychen, D. & S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and Salganik, L. H.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Rychen, D. S. and Salganik, L. H.(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pencer, L. & Spencer, S.(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W. W. Northon & Company, Inc..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jority. *Teacher's Collige Record*, 57, 151–163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York: Harper and Row. Publisher.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y*, 1, 2–20.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Jossey-Bass.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VCAA(2004). *Introducing the 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
- Witt, P. A., & Ellis, G. D.(1987). *Leisure diagnostic battery: conceptualization,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 and procedure for testing and scoring*.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distributor.
- Young, K. S.(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 Rep*, 79, 899–902.

Part 2: 청소년 역량지수(안) 공청회 토론문

1.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115
2.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118
3.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121
4. 조영미 (한국 YWCA 연합회 부장) 122
5. 이세아 (서울당곡고등학교 학생) 127

『청소년 역량지수 및 측정문항 개발을 위한 탐색적 논의』에 대한 토론

유 성 렬(백석대 청소년학전공)

1. 본 연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청소년 역량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지난 제4차 뿐 아니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의 역량을 중요한 정책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변화의 특성을 주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청소년 생활의 전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지수를 개발하고자 한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됨
2.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역량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로 정의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청소년역량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하위 역량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였음.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의 근본 목적은 “균형있는 성장”임.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에 나타난 수련활동의 목적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것이며, 교류활동은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화활동은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활동의 기본 목표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을 함양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4. 청소년활동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청소년활동의 존재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청소년활동이야말로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역량 제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음.
5. 청소년 활동을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져오는 또 다른 효과는 청소년 활동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청소년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나 참여 인원 등의 지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그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족도나 참여 인원과 같은 산출지표(output)에 의해서가 아니라 활동이 목표로 하는 역량의 변화가 나타났는가라는 성과지표(outcome)가 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활동을 역량과 연계하여 전개하다면, 무엇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하게 된다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 활동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역량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하위 영역 및 세부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 요건임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임
7. 청소년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념과 하위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수립된 하위 영역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하는 것임. 특히 역량이라는 개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된 하위 영역별로 적절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8. 특히 청소년 역량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두에 두어야 할 점은 기존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확보라는 기준과 더불어 측정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 설정된 하위 영역은 모두 16개이며, 50개의 세부지표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지표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인들로 설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신뢰성에만 초점을 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측정문항을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의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문항 수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임.
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타당화를 위해 세부지표별로 하나의 문항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표 III-13>에서는 각각의 역량군에 대해 해당 하위역량 변인의 요인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각각의 하위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10. 만일 각 하위영역별 세부지표 문항에 대한 값을 합산하여 하위영역별 값을 설정하였다면, 전체 역량지수 구성체계([그림 III-1])는 모두 16개의 변수와 5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체 모형에 대한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자유도가 94, 각각의 역량군에 대한 요인분석에서의 자유도가 24~59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수치들과 검증하고자 하는 요인구조와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아울러 [그림 III-1]에 따르면, 일부 역량군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98, .96, .92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역량군들이 개념적으로는 별도의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측정과정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12. 현재의 역량체계 타당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잠정적인 수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체계적인 검증은 각 세부지표별 측정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13. 아울러 지표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수치임을 감안할 때,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는 현재의 용어보다는 “세부지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역량지수 개발에 관한 토론

송병국(순천향대학교 교수)

1.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필요하고 중요하다.

- 본 공청회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 여러 차례 청소년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이 교과나 이론중심이 아닌 수행능력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총론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학교학생만을 다른 한편에서는 직업기초능력만을,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학교가 아닌 전생활영역까지 확대해서 역량을 논의하고 관련 지수를 개발한적은 없다.

-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청소년시기를 교육과 훈련에 올인하다시피 보내는 국가도 드물다. 그런데도 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부족하고, 국가관이나 세계시민으로서 자질도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물론 학교교육에 치우친 청소년교육활동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20여년전부터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량을 함양시켜주고 있는지 학문적 검증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청소년활동들이 뚜렷한 목표나 방향없이 비전문적으로 운영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 꼭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활동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부족하다.

- 적어도 국가사회적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 개발되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개발되고, 합의된다면 청소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 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새롭게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이정표를 얻게 된다. 단순히 청소년기 이룩해야 할 발달과업 수준이 아닌 학교교육이 되었던, 학교밖 청소년 활동이 되었던 청소년기에 함양해야 할 주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청소년교육이나 관련 활동의 체계화와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된다면 미래의 사회복지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2.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목표가 보다 분명해야 한다.

- 청소년역량지수 필요하지만 개발할 때는 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역량관련 지표들이 개발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지수는 많지 않다. 물론 지수가 개발되면 그 타당성과 실질적 적용 가능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널리 활용 가능할 것이다. 실은 시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역량’이 교육정책이나 청소년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 등에서 하나의 트렌드처럼 회자되고 있어 관련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학문적으로 논의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역량지수들을 개발할 때도 그 적용성,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간의 역량과 관련해서 완벽한 개념정의나 측정이 과연 이론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충분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는 해야겠지만 결국은 개발한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실질적인 지표나 지수가 개발되고, 또 활용되어야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진이 이론적 검토에서 밝혀낸 것처럼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유사한 연구들이 너무 많지만 역량에 대한 논의나 지수 개념 정의를 보면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서로 다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나 지표들이 유사함을 오히려 타당성 확보의 한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 청소년역량지수의 경우 국가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또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하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각종 활동 등을 통해서 개발되는 청소년역량을 국가적 수준에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목표가 명확한 가운데 역량관련 지수가 개발되어야 실제로 적용되고, 적용되면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수정 보완되어 그야말로 ‘한국 고유의 청소년역량지수’가 개발 될 수 있다고 본다.

3. 연구진이 개발한 청소년역량 지수는 절차적, 내용적,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수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진의 역량개념 정의에서부터 관련 하위영역 추출, 하위영역별 측정 지수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용적으로 포괄성과 독특성을 지니고 있고, 절차적으로도 전문가협의회, 델파이 조사 등 나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참여한 사례수가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발된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한 1차 예비검사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도 양호하다. 따라서 나름 의미 있고, 타당한 청소년역량지수 초안이 개발되었다고 본다.

- 다만, 토론자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영역인 ‘정서조절’이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감점조절 및 통제 등으로 구성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기 정서조절력은 그 시기 뿐 아니라 미래 성인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 태도라는 연구결과가 많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청소년기에 꼭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서 ‘정서조절과 배려’ 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정서조절이라는 것은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증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은 한 지수로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역량지수’ 모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하위영역 명칭도 4개의 지수를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에서 ‘여가’ 를 다룬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여가활용과 관련해서 과연 여가필요성인식, 여가조절, 여가몰입 등 3가지 지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여가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여가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와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긍정적 경험을 몰입해서 하고 있는지만을 측정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시말해 3개의 지수를 2개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청소년역량과 관련해서 지표나 지수의 완벽한 개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인간의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다. 물론 관련 학문의 발달로 지능을 비롯하여 인간의 능력과 역량을 측정해 내는 기법이나 노하우가 많이 진전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역량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위 영역과 지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다.

- 청소년역량 관련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는 이유는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또한 청소년기 함양해야 하는 역량이 제대로 함양될 수 있도록 정책적,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이론적인 논의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이 개발되면 이를 시행하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수정 보완하여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청소년역량지수’ 되어야 연구진의 노고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당일자료배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사회 속에서 청소년 역량을 고민하면서...

조영미(한국 YWCA 연합회 부장)

오늘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 청소년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미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분야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역량과 정책을 제안해 왔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2008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는 현재에 까지 와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긴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전개해 오신 연구진분들의 지난한 고민과 노력들 속에서 현재의 역량지수 개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그 애정과 헌신의 작업의 과정을 잠시나마 지켜본 부족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본 역량지수 개발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귀한 연구들 가운데서도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기에 본 연구의 작업 과정이 어찌면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의 한국사회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질문 앞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전반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의 결과들이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관련 연구, 청소년 활동현장에서도 서서히 새로운 변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키를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동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역량지수의 핵심 개념과 정제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기 까지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토론자로서 역량지수의 영역과 세부지표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몇 가지 논의점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사회의 변화특성을 무엇으로 읽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관점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가 본 연구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앞서 토론자가 밝힌 대로 본 연구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 그리고 중심축이 무너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개발된 기형적인 유전자들 속에서 기형적 문제의 원인과 더불어 앞으로 대 수술을 거쳐서 더욱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유전인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미래사회의 변화 특성 속에서 현재의 청소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변화의 특성을 주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 생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역량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역량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시대적 특성과 앞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하여야 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 특성과 정책적 특성 속에서 학교중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능력과 자질의 초점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래사회의 변화 특성이 어떠한지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역량이 왜 중요한 의미이며,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그 중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물론 그간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졌고 비슷한 연구과정에서 미래사회의 진단이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유형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있고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과정을 충분히 수용하거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며 예측이 불허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특성이 어떠한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대적 특성과 현실진단을 통해 도출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청소년역량의 비전과 청소년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친 역량지수가 탄생된 그 맥락이 연계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본 연구가 가지는 목적을 더욱 의미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특징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의 둔화, 인구이동의 감소,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추구, 시민사회의 활성화, 탈산업화와 서비스산업의 증대,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진행, 정보사회의 일상화와 창조사회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박은실, 2010).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구축하였으나 그 이면에 나타난 파편화된 사회화와 부정적 상황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 개인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로 나타난 타인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 냉혹한 사회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발전의 논리 속에서 이전의 사회가 공유했던 사회자본은 고갈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가 개별화되면서 사회자본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양식의 생활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규범과 신뢰를 쌓고 그 사이에서 높아지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시간, 장소, 국가 및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합된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아울러 이러한 속에서 어떠한 시민된 청소년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속에서 청소년 역량지수가 의미있는 해답들을 제시하는 키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것이며 각 역량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고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역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기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규정하는 진일보한 작업들이 전개되었으나 우리사회 전반을 총망라하는 진단과 그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는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할 필수적인 유전인자들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통해서 희망의 새시대에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 속에서 역량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의 고민들 즉,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책적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도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체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근거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OECD의 역량개념에 기초해서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8대 생애핵심 역량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수준에서의 학력과 직업자격체계를 통합하여 국가자격체계를 통해 일정수준의 국가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기반 학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기도 하다.

역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며,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모든 청소년에게 공히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역량지수는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책적이든, 교육체계가든, 시민사회적 노력이든, 청소년활동분야에서든, 가정, 대중매체 등에서 청소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

어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전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사회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여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청소년 정책을 넘어서 통합적 정책영역으로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판에 자신을 던지는 청소년들이 마치 트램플린 장에서 그 탄력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자 몸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어느 한 곳의 용수철이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에 대해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가치관 형성 및 태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서 교수들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창의성, 가치관 및 태도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통해서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습능력,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핵심역량은 가치관 및 태도, 대인관계능력, 사회공헌이나 봉사의 역량을 갖춘 리더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외, 2009).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역량에 대한 각 분야별 한계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야하는 다른 분야의 역할과 희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역량지수가 단지 교육 분야, 청소년정책과 활동분야, 문화 분야에서 등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모두가 공히 청소년 역량개발 관점에서 같은 크기의 힘을 맞잡고 서서 그 힘을 서로 나누는 작업이 있어야만 청소년 역량이 반쪽짜리의 역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청소년의 역량에 공히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을 넘어서 트램플린의 원을 둘러싼 용수철 모두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각계 각층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통합적 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이 청소년 역량이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동태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변화에 대해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량지수에 대한 지속적인 제고와 더불어 모니터링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역량에 대해 역량군별 우선순위, 하위역량 우선순위와 청소년 시기별 역량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에서 중요하며, 앞서 제시한대로 미래지향적 관점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근거가 세밀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역량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에서 역량에 대한 남녀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역량지수와 관련해서도 사회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남녀차이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발생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지수에 대한 우선순위와 더불어 성별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의 지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이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급변화 속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위기의식 속에서 후자는 사회전반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암초를 향해서 달려가는 배가 다시금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가야하는지, 어디에다 방향타를 돌리고 회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압축적 성장만을 지향했던 한국사회는 새로운 시대적 의미와 과제 앞에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목표지점을 향해서 방향타를 새롭게 놓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무게중심을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역량지수개발연구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새로운 변화의 모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꿈과 그 안에 담겨져야 할 우리의 모습을 제시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그리고 치열한 논의 전개과정에서 그 방향타를 모두가 함께 돌리는 노력이 전개될 것을 기대하며 토론을 마친다.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공개토론

이세아⁴⁾(서울당곡고등학교 학생)

서울당곡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세아입니다.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공청회에 청소년의 생각과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역량이란 청소년 시기에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개개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균형 있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은 9세~24세까지로 정의된 청소년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역량 개발 활동과 함께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역량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개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의 기본 바탕은 청소년 역량 개발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수치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역량 개발에 필요한 지표나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지역·나이·학년에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발달 단계별로 나누어진 역량 지수 개발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역량지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단계별 역량 개발은 그 발달 시기만을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발달에는 부합되지 않고, 이전 단계의 성장이 더딜 경우 향후 진행될 단계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년이나 발달 단계로 청소년 역량을 위한 지표를 나누지 않고 9세 ~ 24세로 정의된 모든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고 발달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으로 발의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개개인이 건강한 미래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발달 과업인 역량 개발을 위해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았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활동은 “학교안과 밖”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것 이다.

4)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보라매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 안에서의 역량 개발 활동은 주로 학업과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교과에 충실한 수업 시간표, 대학 진학과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과 후 활동, 자율학습 등이 현재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지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청소년시기에는 지적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진로·포래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개발이 학업과 성적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학교 안에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 활동을 통해 많은 부분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밖 동아리 활동, 학원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발전하고 싶은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성적과 공부에 집중되어있는 학교 안에서의 역량 개발이 아니라, 스스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역량 개발이 주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의 역량 개발은 완벽히 정해진 기준과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활동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이 원하는 역량 개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저마다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활동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의 적극성이나 참여 동기가 학교 안 교육보다는 높은 편이며,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정해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의 자율성 또한 높은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 밖 활동은 참여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지녔기 때문에 활동의 책임성 또한 청소년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과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청소년들은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을 통해 몸소 느끼고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하나씩 배우고 습득해 나아가고 있다.

청소년 역량 개발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전 연령을 아우르는 역량 개발 지표를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의 역량 개발은 학교 안과 밖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 개발 위주의 학교 안 활동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밖 활동이 청소년 시기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진행 될 수 있어야 하며, 두 가지 분야의 활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청소년 역량 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역량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본 공청회에 참여하여 청소년인 나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 역량 개발은 특정한 활동이나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청소년들 곁에 항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공청회 자료집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인 쇄 2014년 01월 20일

발 행 2014년 01월 21일

발행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전화 / 02-2075-4500

발행인 조 윤 선

인쇄처 한국장애인네트워크협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 · 대외협력팀)

